

책거리 20세기 전반

종이에 채색, 개인 소장

일정한 크기로 나뉜 서가에 책과 기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 서가는 중국의 다보격*이 아니라 조선의 가구다. 규격화되고 형식화된

서가에 칸막이벽은 한결같이 왼쪽에만 배치하고 음영을 넣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민화의 자유로움이 가득하다. 24칸의 서가 속에 책과

기물과 동식물들이 한 곳도 똑같은 모습 없이 다양하다. 어느 한 칸만 취해도

곧바로 러시아 구성주의 회화를 떠올릴 만큼 현대적 감각의 구성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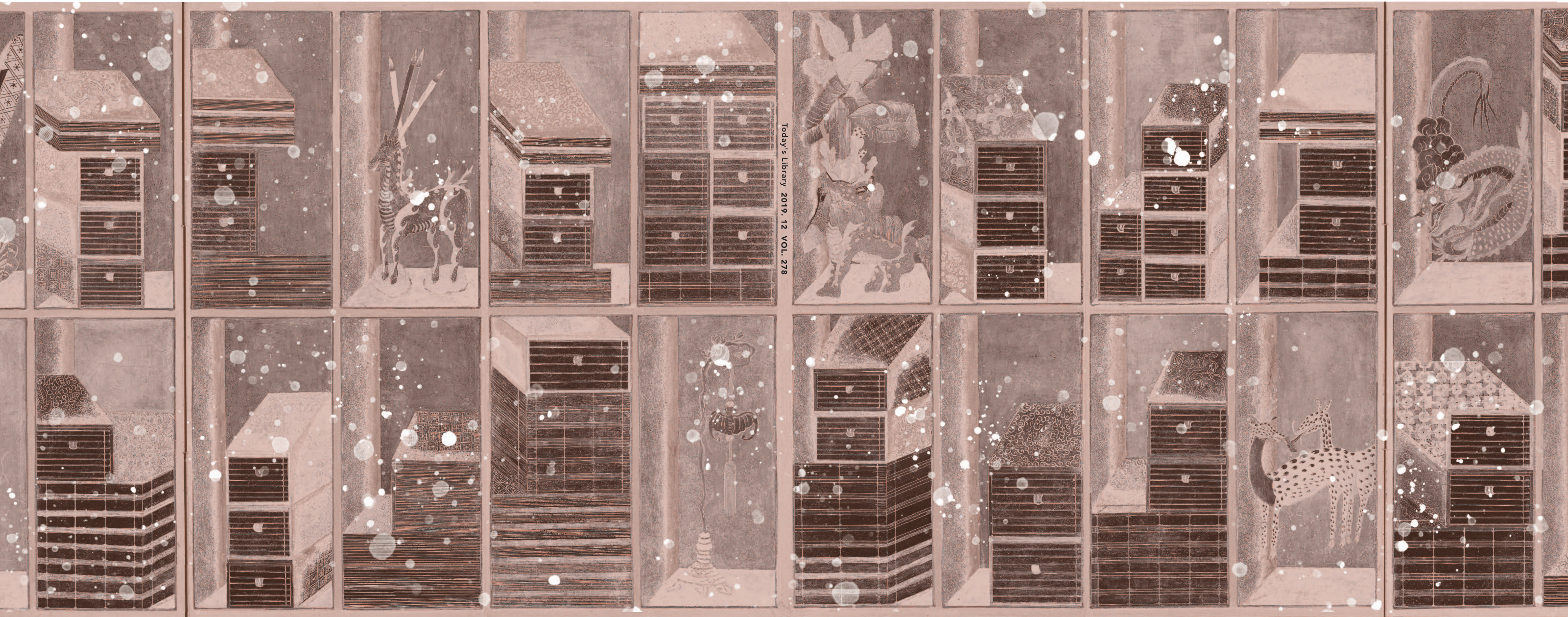
* 중국에서 골동품을 진열하던 장식장

20세기 전반

오늘의 도서관

VOL. 278

2019.12



발행등록 11-137Q014-000026-06

ISSN 2233-8632

월간 《오늘의 도서관》은 누리집 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목차

2019. 12
Vol.278



04

12월의 칼럼

왜 과학소설(SF)을 읽는가?

SF연구가 _ 고장원

06

소문난 간서치

번역자가 만난 '그 책'

번역자 _ 김남주

10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진화학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엿보다

진화학자 _ 장대익

시 간 을 나 르 는 책

1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희귀본

조선 유학자 박세채의 인생 이력서

『남계선생연보』

20

강연을 읽는 시간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강연회

24

지도 이야기

끝없는 고민 끝에 탄생한 김정호의 야심작

『청구도』

책 나 르 는 사 람 들

28

한눈에 보는 문학상

오 헨리 상

31

사서의 기록

2019 문화동반자 사업 연구 발표회

33

전문가 서평

기억 저편에 유폐된 왕들에게 바치는 헌사 『유배중인 나의 왕』

출판평론가 _ 장동석

35

사서 추천 도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도서

달 리 는 오 늘 의 도 서 관

40

국내도서관 탐방

서울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44

국외도서관 탐방

스페인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

48

헤드라인 뉴스

- 러시아국립도서관에 한국자료실 개실

- 2019년을 빛낸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협력세미나 개최

50

국내도서관 소식

53

국외도서관 소식

54

웹툰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오늘의 도서관》 12월호 카드뉴스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블로그 <https://blog.naver.com/todayslibrary>

유튜브 <https://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월간 《오늘의 도서관》 제29권 10호 통권278호 발행일 2019년 12월 4일 발행등록번호 11-137Q014-000026-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차경례, 손정미, 송경진, 김의래, 홍영미, 권정임 편집 김시은 todayslibrary@mail.nl.go.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23 팩스 02-590-6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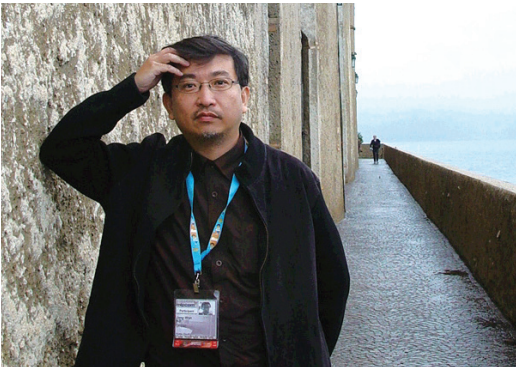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표지디자인 임동한 디자인 · 제작 승일미디어그룹(주) 1800-3673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hl.or.kr

왜 과학소설(SF)을 읽는가?

글 **고장원** SF연구가 · 작가



아마 1973년일 게다. 당시 불과 초등학교 2학년이던 내가 도서관과 깊은 연을 맺은 시기가.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지만 당시에는 도서관 문화가 널리 보급되지 않아 어린이의 발길이 닿기 쉽지 않았다. 허나 운이 따랐다. 다니던 서울 모 초등학교 길 건너에 구립도서관이 들어섰으니. 인터넷 게임은 고사하고 휴대폰도 꿈꾸지 못하던 시절, 도서관은 마치 세계로 들어서는 관문이었다. 설록 흠즈를 앞세운 추리소설과 각종 모험소설이 가득했으니까. 종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읽던 중 부지불식간에 한 가지 유형의 소설에 몰입하게 되었다. 바로 과학소설(SF)이었다.

어린 나의 눈에 휴고 건즈백의 『27세기 발명왕』을 필두로 레이먼드 존스의 『합성 뇌의 반란』, 아이작 아시모프의 『강철도시』 등 20세기 초중반 영미작가들이

선보인 미래 세상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도서관에 비치된 과학소설 수십 권을 독파한 뒤 새로운 영양분이 절실해진 나는 남산의 좀 더 큰 도서관으로 진출(?)하였다. 어린이가 버스까지 타며 도서관에 간다면 예나 지금이나 보통 정성은 아니리라. 이유는 간단했다. 한 줌의 어린이 용돈으로 어찌 그 많은 과학소설들을 다 사 모았겠나.

흔히 과학소설을 앞잡아보는 이들은 SF를 통과외레 성격을 띤 문학 장르라 본다. 뭐든 경이롭게 보일 어린 시절에나 먹힐 문학 형식이지 어른이 되어서도 곁에 두고 읽을 만한 책은 아니라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꾸준히 과학소설을 쓰는 수십여 명의 국내 작가들은 주독자층을 어찌서 성인으로 삼을까?

국내외 불문하고 과학소설이 아동문학 취급받은 적이 있긴 하다. 그러나 미숙한 아이라도 결국 어른이 되는 법. 문학일진대 어찌 성장 없이 멈춰 서겠는가. 사실 현대 과학소설의 시작은 꽤 고매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활동한 사상가들과 지식인들이 그 기본 형태를 다듬고 실험했으니 말이다. 에드워드 벨라미와 H. G. 웰즈, 줄 베르느, 올라프 스타플든, 예브게니 자마찐, 카렐 차페크, 조지 오웰 그리고 올더스 헉슬리 등은 과학소설 형식을 빌려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던 인류 문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다. 다만 이런 문학 형식의 대중적 인기를 일찌감치 간파한 미국 출판사업자들이 비슷비슷한 포맷의 이야기들을 양산하는 통에 아이들이나 보는 소설이라는 편견이 생겨났을 뿐이다. 그렇다고 SF문학이 마냥 널브러져 있던 것은 아니다. 1960년대 말 순수문학 기법을 접목시킨 뉴웨이브 운동과 1970년대 페미니즘 SF, 1980년대 사이버펑크 그리고 21세기를 전후해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과 특이점 SF*의 세례를 받으며 과학소설 지평은 갈수록 넓어졌다. 그 결과, 오늘날 과학소설은 단지 과학기술 문명을 꿰뚫어보는 헤안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와 문학적 완성도면에

* 인공지능이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간 지능을 뛰어넘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SF

서도 순수문학에 비해 전혀 손색없는 자산을 갖게 되었다.

모든 독서에는 나름의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과학소설을 읽으면 어떤 쓸모가 더 있을까? 과학소설은 과학적 경이만이 아니라 세상을 유기적으로 볼 수 있는 넓고 열린 시야를 제공한다. 오늘날의 세계는 현실적 속사정이 너무나 복잡다단하게 맞물려 있어 종합적 이해를 요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국가들에 국내 의료진을 보내자는 주장으로 국회가 시끄러웠다. 여야 간 설전보다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이미 현지에 파견된 해외 의료진 가운데 200여 명이 사망했을 만큼 치사율이 높은 이 4급 바이러스에 대한 격리 연구치료시설이 국내에 전무했다는 사실이다. 인도주의의 깃발만으로 고병원성 바이러스를 견뎌낼 수 있을까. 마거릿 애트우드의 『미친 아담 시리즈 MaddAddam』, 2003~2019와 마이클 크라이튼의 『안드로메다 스트레인 The Andromeda Strain』, 1969을 읽은 독자라면 이 논란을 어찌 바라보았을까?

나로호 우주로켓 발사의 연속 실패나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을 둘러싼 논란은 또 어찌 봐야할까. 개인의 일탈 이전에 정부와 과학계의 구조적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제임스 P. 호건의 『창세기 기계 The Genesis Machine』, 1978와 앨리스 버드리스의 『누구? Who?』, 1958는 과학자들이 순수한 의도로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버거운지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예컨대 『창세기 기계』의 주인공인 젊은 수학자는 전쟁과 무관하면 연구자금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다 보니 애초 의도와 달리 핵폭탄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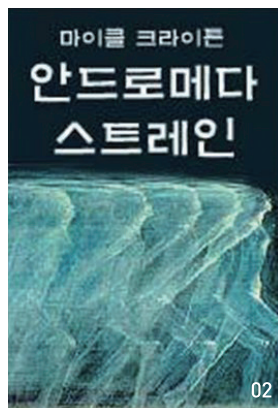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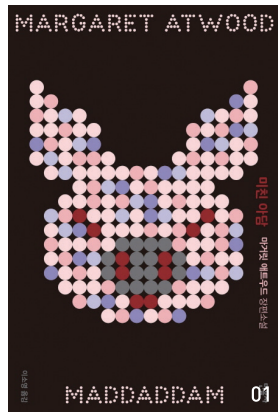
최근 사람들의 관심사인 자율주행차 문제는 어떨까. 자율주행차 개발에서 가장 부가가치 높은 분야는 인공지능이며 나머지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본격 자율주행시대에 들어서면 자율주행은 기본이고 인공지능이 탑승자를 얼마나 안락하게 리드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차 안에서 숙면은 물론이고 누워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과 주식거래, 화상채팅까지 하게 되는 날이 오면 전국 숙박시설은 큰 타격을 입을 테고 온라인 쇼핑몰과 증권거래소의 거래 행태는 한층 진일보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율주행차 산업이 일자리 늘리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조인력 수요는 전기자동차로 바뀌면 내연기관의 십여 분의 1로 줄 테고 인공지능 개발에는 다수 노동자가 아니라 극소수의 천재 · 수재급 연구원이 필요하다. 결국 인공지능 개발과 직결된 소수 인재들만 매출 수익의 대부분을 독식하고 차체주물공장과 전기엔진착업체는 빠듯한 단가 경쟁으로 겨우 밥 먹고 살 정도에 머물 것이다. 비에르 드 릴라당의 『미래의 이브 The Eve of the Future』, 1886 이래 현재까지 수많은 과학소설이 인공지능의 다양한 가능성과 그것이 초래할 위기를 그려오지 않았던가.

요약하자면, 과학소설은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에서 어찌 대응하면 좋을지 다양한 시각에서 조언해준다. 요 몇 년 사이 국내에 출간된 과학소설 단행본은 연간 약 100권 안팎을 넘나든다. 다시 도서관으로 화제를 돌릴 때다. 지난 몇 년 치만 어렵잡아도 수백 권 넘는 과학소설이 출간되었으니 개인이 어찌 그 많은 책들을 사서 서가에 모셔두겠는가? 지금이라도 읽고 싶은 과학소설이 있다면 도서관에 신청하자. 그 정도 부지런만 떨어도 돌아올 대가는 곱절이 넘을 테니.

고장원

SF연구가이자 작가. 2005~2006년 서울벤처정보통신대학원 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했으며 2004~2006년 과학문화재단 후원 동아시아연구소 주최 과학기술창작문에 과학소설 부문 심사위원, 2014~2015년 과천과학관 주최 제1~3회 SF어워드 심사위원 등 SF 분야 심사위원을 수차례 맡았다. 『특이점 시대의 인간과 인공지능』, 『SF란 무엇인가?』, 『세계과학소설사』, 『SF의 법칙』, 『스페이스오페라란 무엇인가?』 등 다수의 도서를 펴냈다.



01
2019년 맨부커 상 수상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의 디스토피아 소설 시리즈 '미친 아담 3부작'의 완결편 『미친 아담』

02
『쥬라기 공원』 작가 마이클 크라이튼의 과학소설 『안드로메다 스트레인』. 5일 만에 걸쳐 전개되는 미국의 과학 위기를 담고 있다



01

번역자가 만난 ‘그 책’

번역자가 운명적인 작품을 만나는 순간

이따금 문학 번역을 밥벌이로 삼기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내가 그 일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일이 나를 찾아온 듯한 느낌이 강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지울 수 없지만, 문장을 매개로 저자의 머릿속 갈피갈피를 치밀하게 탐사하는 과정은 고맙고 신나는 일이다. 특히 저자가 때로는 친근하고 때로는 경외감을 일으키는 매력적인 글을 쓰는 경우에는.

그 책을 우편으로 받아들었을 때 나는 점심 식사를 마친 참이었다. 전전 날 함께 일하는 출판사 편집자로부터 문장 및 분위기가 나와 어울릴 만한 작품을 한 권 보내니 검토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책이 도착한 것이다. 나는 커피를 내리면서 천천히 봉투를 열어 책을 펼쳤다. “내 이름은 캐시 H. 서른한 살이고 간병사로 일하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소설을 주방 식탁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한 시간 후에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책장 넘기기를 계속했고, 다시 한 시간 후에는 책을 들고 침대로 옮겨갔다.

그의 영어 문장은 담담하고 잔잔하고 나직하고 평온했다. 격렬한 감정의 격류를 담아낼 때조차도 물살이 부딪치는 바위나 돌의 매끄러운 표면과 같은 느낌을 주었는데, 웬지 행간에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아 몇 번이나 읽기를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아야 했다. 뭘까, 단락과 단락 사이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

주인공은 영국의 평범한 기숙학교 해일섬에서 보낸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매사에 자기 시각을 지닐 줄 알았던 친구 루스, 엉뚱하지만 특유의 통찰력을 지닌 토미, 세상의 아름다움과 지식의 경이로움에 눈뜨도록 도와주는 교사들, 불이 꺼지고 난 기숙사에서 소곤거리며 이어지는 대화……. 동심과 치기와 순수가 교차해 얼핏 성장소설처럼 보이는 캐시의 이 이야기 속에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드는 몇몇 단어

01
작업할 때 사용하는 만년필을 비롯한
필기구들

02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김남주 번역자

번역자는 책을 만날 때 구절마다, 문장마다, 단락마다 독자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끊임없이 작가의 머릿속을 탐사하며 타국의 언어와 우리말 사이에 놓인 고개를 넘어 정확한 표현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그리하여 번역은 그 자체로 새로운 방식의 ‘읽기’이다. 특히나 많은 독자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싶은 운명적인 작품을 만났을 때, 번역자의 읽기는 더욱 깊어지고 치열해진다.

글 김남주 번역자 사진 최성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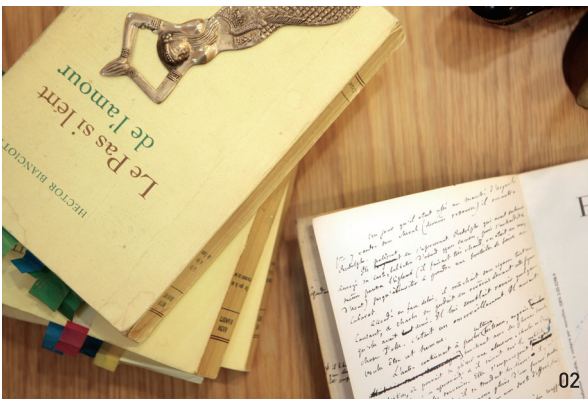
02

들이 등장해, 혹시 몇 줄을 빠뜨리고 읽은 게 아닐까 하고 넘긴 페이지를 다시 보게 만든다. 자신이 그곳에서 얼마나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지, 성격 강한 친구 루스와 어떻게 사귀고 다투고 화해했는지, 평생의 사랑인 토미와 어떻게 엇갈리고 다시 만났는지를 과거와 현재, 그곳과 여기를 오가며 풀어놓는 캐시의 이야기 속에 ‘간병사’, ‘기증’, ‘완결’ 같은 말에 이어 ‘근원자’, ‘일반인’, ‘장기’ 같은 생경한 단어가 튀어나오는 것이다.

이 작가 누구지? 나는 노트북을 열고 저자를 검색해보았다. 저자가즈오 이시구로 Kazuo Ishiguro는 앤서니 홉킨스와 엠마 톰슨이 주연한 제임스 아이보리의 영화로 유명한 『남아 있는 나날』The Remained Days』의 원작자였고, 그 작품으로 이미 맨부커 상을 받은 바 있었다. 나가사키에서 일본인 부모 아래서 태어났는데 5세 때 부모를 따라 영국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고 영국에 귀화한, 영어로 글을 쓰는 영국인이었다. 그의 문장에는 묘하게 동양적인 분위기가 깃들어 있었고 표현 방식 역시 그러했다. 그는 사실이나 정황을 그대로, 혹은 과장해서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과 정황에 관련된 심리의 결을 드러내기 위해 힘찬 필치보다는 고운 붓질을 선택한 작가였다. 그리하여 아무렇지도 않은 조용하고 단단한 문장 속에서 화자의 성격뿐 아니라 작품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게 한 가즈오 이시구로의 작품 세계

두어 시간쯤 지난 후 책을 덮고 책상 앞에 앉았다. 내 경우 번역할 책을 고르든 읽을 책을 고르든 간에 처음 50페이지를 읽으면 그 책을 계속 읽을 것인지, 덮을 것인지, 아니면 두었다가 천천히 새기면서 읽어야 할지가 결정된다. 간간이 쪽 읽어가다가 뒷부분을 들추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대개 내가 번역하기에 적당한 책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 때다. 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처음 만난 정황이 앞으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지라 책을 만날 때에도 최대한 그 책과의 교우에 맞는 ‘읽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제대로 읽을 책이라면, 특히 소설이라면 뒷부분을 서둘러 보아서 저자가 세심하게 준비해놓은 단계들을 마음대로 뛰어넘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번역이 결정된 책이 아니라 출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서를 써야 할 경우에도 100페이지를 읽기 전에 그 책에 대한 평가가 판가름이 나곤 한다. 그런데 이번 경우 절반을 넘기고서도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번역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01
김남주 번역가의 서가

02
번역 작업한 액토르 비앙시오토의 원서들. 국내에는 『밤이 낮에게 하는 이야기』, 『아주 느린 사랑의 발걸음』으로 출간되었다

설렘과 궁금증을 동반한, 그윽하면서 아릿한 즐거움이 나로 하여금 책장을 넘기는 손을 멈출 수 없게 했다.

다시 노트북을 열고 편집자에게 이메일을 썼다. 번역자로서 이런 책을 기다려온 것 같다고, 이 책을 꼭 번역해야겠다고. 나는 프랑스어 쪽 번역에 더 익숙했지만 이 책을 만나기 위해서 번역을 시작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당시까지 가즈오 이시구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진 작가가 아니었다. 2009년 책이 나온 후 가진 북토크 자리에서조차 “일본어 번역도 하시는지 몰랐는데요?”라는 질문이 나와서 내가 일본어를 번역은커녕 간단한 회화조차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줄곧 밝혀야 했다. 이름이나 외모 때문에 가즈오 이시구로를 일본어로 글을 쓰는 일본 작가로 여겼던 것이다. 어쨌든 이 작품을 필두로 이후 그의 작품 네 편을 더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독자로서, 그리고 역자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시구로의 독특함은 표현방식에 있다. 아주 담담한 문장으로 아주 거대한 이야기를 극히 사실적으로 서술하면서 놀랍게도 사실주의를 넘어서는 초현실적인 골목으로 들어선다. 그리하여 장르상의 모든 구분을 무화시켜버리고, 문학의 본령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영혼이 진화하는 순간을 독자에게 선사한다. 그의 작품들을 번역하면서 나는 ‘채색 유리’든 ‘투명 유리’든 ‘요철유리’든 간에 아무것도 끼우지 않고 ‘번역되지 않은’ 듯한 문장을 독자들에게 내놓고 싶었다. 다시 말해서 “유리가 있다는 것을 즉각 알 수 있는 직역”이든, 혹은 “유리가 없다고 착각할 정도로 완전히 투명해진, 그러니까 원문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대응에 충실한 직역이 아니라 해당 작품이 번역본이라는 것을 잊을 정도로 새롭게 쓴 의역(조르주 무냉¹⁾)”이든 간에 유리로서 문장 위에 끼워지는 것이 아니라 낮고 담담하며 깊은 그의 문장 속에서 그냥 ‘사라지고’ 싶었다.

작품을 전달하고 싶은 열망이 담긴 번역의 ‘읽기’

사실 번역은 또 하나의 ‘읽기’다. 독자를 염두에 둔 읽기이므로 번역자는 구절마다, 문장마다, 단락마다 도착어(Target Language²⁾)의 표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작품 안에서는 물론 한 단락 안에서도 투명유리를 끼운 듯 문장을 갈아엎어 저자가 의도한 바를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의역해야 하는 부분과, 비유적으로 음성적으로 호응하는 언어의 기적 같은 효과를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도록 원문에 충실한 채색유리를 끼워야 할 부분이 있다. 나아가 로마어인 영어·프랑스어와 우랄알타이어의 한 갈래인 우리말 사이에 놓인 고개들을 표현과 의미가 힘찬 발걸음으로 넘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언어와 문장만이 줄 수 있는 정화의 감동을 독자에게 선사할 수 있도록 빛이 미묘하게 굴절되는 나만의 요철유리를 끼우고 싶었달까. 요철 때문에 일그러진 상이 오히려 원문의 향기를 더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가즈오 이시구로의 『창백한 언덕 풍경』을 번역할 때에는 유전자에 박힌 민족성이 얼마나 질기고 깊은지에 대해 생각했고, 『부유하는 화가』를 번역하면서는 예술의 본질에 대한 섬세한 붓 터치에 감탄했으며, 음악과 황혼에 관한 아름다운 단편집 『녹턴』에서는 인간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창백한 언덕 풍경』

의 숙명적인 고독과 극복의 한 방법을 엿본 느낌이었다. 추리소설 형식의 『우리가 고아였을 때』에서는 현대사 속에서 동서양의 부딪침, 그 한 자락을 본 듯해서 재미있으면서 씁쓸했다. 좀 더 평가 받아야 할 작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덜 알려져 있다고 여기면서 조금쯤 외롭게 그의 작품을 번역한 시간은, 이제 돌아보면 호젓한 오솔길을 걷는 듯했다. 그러다가 그의 작품에 대해 “아주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이음매가 전혀 보이지 않게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마무리된 그의 소설들이 지닌 아름다움이 아직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존 프리먼, 『소설가를 읽는 방법』)”는 표현을 만나면 동지를 만난 듯 기뻐다. 북토크가 있을 때마다, 때로는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작가에 관해 이야기했고, 역자 증정본은 물론 여러 권을 따로 사서 주변에 주기도 했다. 출판사에서조차 작가를 알리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 그의 책이 실린 일간지 전면 광고를 나는 아직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 독자들의 반응이 많이 저조했다.

2017년 가을 추석 연휴 중이었다. 내 휴대폰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가즈오 이시구로가 노벨상을 받은 것이다. 물론 우리는 안다. 상을 받기 전에도 그는 이시구로였다는 것을!

김남주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다. 자아를 인식할 무렵 사르트르와 카뮈, 랭보를 통해 프랑스 문학과 만났다. 이화여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1988년 번역을 시작해 그 동안 주로 프랑스 현대문학을 우리말로 번역해왔다. 지은 책으로 『나의 프랑스식 서재』, 『사라지는 번역자들』이 있고, 옮긴 책으로 로맹 가리의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와 『여자의 빛』, 프랑수아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해요...』와 『슬픔이여 안녕』, 아스미나 레자의 『행복해서 행복한 사람들』과 『비탄』, 벨라 웰리스의 『두 늙은 여자』 등이 있다.



인공지능 시대, 인간은 어떻게 변할까

인공지능부터 소셜네트워크, 빅데이터 등 디지털 문명은 어느새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막연한 두려움도 따라온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는 시대, 인간의 사회성은 과연 어떠한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며 미래의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김지우 사서가 문화 및 사회성의 진화를 연구하는 장대익 진화학자를 직접 만나 그 답을 들어보았다.

정리 박은아 사진 한상훈

진화학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엿보다

김: 기초적인 질문이겠지만 진화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소개해달라.

장: 보통 진화학이라고 하면 진화생물학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진화학은 기본적으로 자연이 어떻게 변하고 대물림되는지, 반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등의 자연 변화를 연구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안에는 진화생물학부터 진화심리학, 진화발생학까지 여러 분야가 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진화심리학에서는 인간 본성과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연구한다. 내 경우에는 진화생물학뿐 아니라 진화적인 관점에서 인간 심리도 연구하고, 과학철학 분야를 공부했기 때문에 철학이 진화적 관점에서 어떻게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지 등도 다양하게 연구한다. 이를 통틀어서 스스로를 진화학자라고 소개한다.

진화학 중에서도 인간 사회성의 진화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서『사회성이 고민입니다』, 『울트라 소셜』 등을 읽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사회성은 소셜미디어, AI 등의 테크놀로지 앞에서 새로운 양상을 낳고 있는 것 같다. 오늘날 현대인이 직면한 사회성의 가장 큰 변화와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사회성 관련 책을 쓰면서 앞으로 인간의 사회성이 큰 고민인 시대가 될 거라는 말을 했는데, 우선 소셜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트위터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 채널을 최소한 하나 이상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속도와 달리 인간의 사회성은 무한하지 않고 총량이 정해져 있다. 『사회성이 고민입니다』에서도 설명했듯이 진화심리학자 로빈 던바·Robin Dunbar는 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최대치는 150명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사회적 뇌^{Social Brain} 가설에 따르면 사회가 아무리 복잡해져도 한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긴밀한 사회적 관계의 최대치는 150명 안팎이라는 거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관계 맺기를 강요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수렴집중사회와 농경사회 때와는 달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너무 폭넓게 개입되는 현상을 겪게 된다. 자연히 사회성 고갈이 일어나고 지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인간이 맺은 관계는 인간과 인간, 기껏해야 인간과 동물 혹은 인간과 식물 간의 관계에 머물렀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보면 상대할 대상이 자연계를 넘어 AI와 같은 인공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비인간적인 인공물과의 관계는 인간의 사회성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인류 진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인간이 자신이 만든 존재와 진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시점 앞에 와 있는 거다.

사람의 편의를 위한 기술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그런데 AI에 대한 감정은 자동차나 비행기 등의 최신 기술을 처음 맞이했을 때와 많이 다른 것 같다. 인류의 가장 위협적 존재로 AI를 꼽는 사람도 많다. 우리는 왜 유독 AI를 두려워하는 걸까? 인간이 관계를 맺는 대상이 AI와 같은 인공물로 확장되고 있다고 했는데 인간이 로봇과 친구가 될 수도 있을까? 진화학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기억하고 있을 거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다. 당시 우리 연구팀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세돌이 이기기를 바랐지만 만약 진다면 사람들이 어떤 충격을 받을지, 그 충격을 보상하기 위한 어떤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연구할 수 있겠다는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정말 4:1로 지게 된 거다. 그래서 이세돌의 패배를 통해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 위협과 변화를 겪는지 연구했다. 심리학에서는 보통 인간의 특성을 도덕성, 자율성, 창의성, 합리성 등의 10가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알파고의 승리는 그중에서도 합리성과 정교함 부분에서 가장 큰 위협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서 충격을 받고 침울한 상태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AI의 위협을 받지 않은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 창의성이나 도덕성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기계가 인간을 이기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동안

중요시하지 않았거나 사소하게 여겼던 인간의 특성들을 새롭게 발견하며 살 길을 찾을 거라고 본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분명 위협받은 부분이 있다는 거다. ‘합리성과 정교함이 아닌 다른 부분들도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특성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만약 AI가 모든 부분에서, 특히 인간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여기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능가한다면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위협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친구가 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우리는 키우는 반려견이 인간보다 냄새를 잘 맡고 소리를 잘 듣는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러한 특성은 인간 본성과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려견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AI가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하리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어떤 방향으로 AI를 발전시킬지 고민해봐야 한다. 인간 특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AI를 계속 발전시키고 투입하는 건 어쩌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사회성을 연구하는 교수로서 갖고 있는 인간관계나 사회성에 대한 고민도 있나?

강의도 많이 하고 책도 쓰는 사람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편이다. 페이스북 친구도 4000명 정도 된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하는 활동에 대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데, 사실 너무



장대의 교수가 번역한 『종의 기원』과 직접 저술한 책들이 있는 서가

불편하다(웃음). 또 40~50대가 되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지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스스로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나 역시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고, 평판에도 신경을 쓴다. 다시 말하면, 사회성을 연구하는 학자라도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 결국 인간이라면 모두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성에 관한 고민이다.

최근 번역한 다윈의 『종의 기원』 초판본은 진화학자가 번역해서 더 의미가 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난다. 사서로서 100년 전에 출간된 책을 접할 때가 있는데, 한글이어도 사실 쉽게 읽히지는 않은 경우가 많다. 160년 전에 나온 『종의 기원』을 번역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번역 작업을 했는지 알고 싶다.

160년 전에 쓰인 책이고 더군다나 과학 책이다. 그래서 원본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인들이 조금이나마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접점을 찾으려고 애썼고, 그런 부분이 매우 어려웠다. 예를 들어서 『종의 기원』은 한 문장이 한 페이지를 넘어갈 정도로 긴 경우가 많

다. 다윈이 책을 쓴 빅토리아 시대에는 글 꽤나 쓴다는 문장가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썼다. 그러나 원문 그대로 문장을 길게 번역하면 아무도 못 읽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문장을 너무 짧게 끊으면 다윈이 쓴 문장의 맛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간에서 적당한 지점을 찾으려고 했다. 그리고 다윈이 쓴 용어들의 표준적인 번역어를 만들려고 했다. 예를 들어, 다윈이 쓴 ‘struggle for existence’이라는 용어를 지금까지는 생존 경쟁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책에서는 ‘생존 투쟁’이라고 번역했다. 생존 투쟁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치열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다. 또 하나, 사실 『종의 기원』 1판에는 진화^{evolution}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다윈은 대신 ‘descent with modification’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윈은 ‘진화’라는 말을 쓰지 않기를 원했는데 그동안에는 이에 대한 표준적인 번역어가 없었다. 나는 ‘변화를 동반한 계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와 같은 용어 정립은 나 혼자만의 결정으로 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화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만든 일종의 스타디그룹인 ‘다윈 포럼’이 있다. 거기서 다윈이 쓴 용어들을 어떻게 번역할지 함께 상의해 결정했다. 공식 학회는 아니지만 진화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고 합의하여 번역어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책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로서 책이 인류의 진화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인간은 사상과 가치, 아이디어 등을 만들어내고 후대에 전수한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학습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사회적 학습능력은 다른 동물에 비해 출중하다. 예를 들어 침팬지의 세계에도 뛰어나게 똑똑한 천재가 나온다. 그런데 그런 천재 1마리에서 끝나 버린다. 그러나 인간은 기가 막힌 뭔가를 발명하면 꼭 기록으로 남기고 후세에 전한다. 뉴턴^{Isaac Newton}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후에는 다들 그 이상을 생각하게 되지 않았다. 뉴턴도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때 거인은 데카르트^{René Descartes}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이전 세대가 이뤄놓은 지식의 체계 위에 하나를 더 얹어서 보는 거다. 그게 인간이다. 침팬지의 세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침팬지의 세계에서는 혁신은 일어날 수 있지만 전수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인간은 문명을 만들고 침팬지는 문명을 만들 수 없던 이유다.



장대의 진화학자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김지우 사서가 인간 사회성 및 문화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장대익 교수가 즐겨찾는 집 근처의 판교도서관 © 판교도서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책은 어마어마한 문명의 요체다. 그동안 쌓아 놓은 지식을 일종의 문자로 기록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전달할 수 있는 비법을 만든 셈이다. 그래서 문자와 책의 발명은 인류 진화의 역사에 있어 가장 큰 변곡점이 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동료 학자들과 함께 과학책방 ‘갈다’를 직접 운영할 만큼 책과 독서 문화에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평소 갖고 있던 도서관에 관한 생각이나 추억이 있나?

미국 생활을 했을 때 괜찮은 마을에는 항상 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인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이 마을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걸 느꼈다. 세미나와 강연회, 파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일상적으로 도서관에 들러 숙제를 하거나 소모임 활동을 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마을의 작은 도서관들이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아이들이 학원이 아닌 도서관에 모이는 일이 벌어진다면 한 마을의 수준이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했다.

도서관과 관련해 인상적이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이사를 하면 주변에서 모두 그 마을의 도서관 회원증부터 만들라고 했다는 거다. 미국에서는 도서관 회원증을 만들면 그걸로 그 도시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도서관 회원증이 일종의 주민등록증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도서관 회원증을 갖고 있고 일상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한다. 그게 너무 좋아 보였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집을 구할 때도 도서관이 있는지를 매우 중

요한 기준으로 두었고, 판교도서관에 반해 근처에서 살게 됐다. 요즘은 한국 도서관도 책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건 기본이고 다양한 행사와 강연을 주최하면서 마을 문화의 중심이 되어 가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시대에 미래의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다.

모든 면에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서관도 예전과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감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다.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종이책을 본다. 책이 가진 물성 때문이다. 책을 보면 두께도 있고, 표지의 질감도 있고, 심지어 냄새도 나지 않나. 그래서 나도 내 서재에 오면 늘 기분이 좋고, 책들이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물성을 지닌 공간만이 줄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

오늘날 도서관이 오프라인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가야만 느낄 수 있는 지식의 분위기와 문화적 충족감은 미래의 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줘야 할 아날로그적인 감성일 것이다.

더불어 도서관의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는데 사서 분들은 오히려 자동화 서비스가 할 수 없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빅뱅에 관해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검색대에서 빅뱅을 검색해도 관련 책이 나오겠지만 과학 분야 사서가 직접 어떤 종류의 책을 읽을지 상의해서 추천해준다면 훨씬 더 만족도 높은 큐레이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식의 북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다.

인터뷰는 YouTube의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채널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장대익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인지과학 연구소 소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했고,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생물철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런던정경대학교에서 생물철학과 진화심리학을 공부했으며 일본 교토대학 영장류 연구소에서는 침팬지의 인지와 행동을 연구했고, 미국 터프츠 대학 인지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했다. 제11회 대한민국과학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다윈의 식탁』, 『다윈의 서재』, 『다윈의 정원』, 『울트라 소셜』, 『사회성이 고민입니다』 등이 있으며, 『종의 기원』, 『통섭』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남계선생연보』 인생이력서 조선 유학자 박세채의

시간을 나르는 책

생애를 담다, 생애를 바치다

『남계선생연보南溪先生年譜』는 조선 유학자 박세채의 생애가 기록된 연보로, 당시 학자들은 조상이나 스승의 인생을 담은 연보 편찬을 통해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 해당 인물의 삶을 재해석했다.



조선 유학자 박세채의 인생 이력서

『남계선생연보南溪先生年譜』

한 사람의 생애를 연도순으로 자세히 기록한 연보는 성리학이 도입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시기에 많은 학자들이 몰두한 작업이다. 학자들은 조상이나 스승의 연보를 편찬함으로써 해당 인물의 삶을 재해석하고 그들의 후계자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선시대 유학자 박세채 역시 율곡 이이와 정암 조광조의 연보를 편찬하였으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제자들이 박세채의 생애를 기록한 『남계선생연보』가 탄생했다.



『남계선생연보南溪先生年譜』古書2511-25-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01
『주문공연보』송계古2521-18
조선후기 문인들의 연보 편찬에 영향을 미친 송나라 성리학자 주희朱熹의 연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02
박세채 초상 경기도박물관 소장



잡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연보는 문집에 부록으로 실리는 수준을 넘어서 별도의 책으로 편찬할 정도로 분량이 늘어났다.

연보 편찬은 해당 인물의 후손이나 제자가 맡았다. 생애를 속속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저명한 인물의 연보 편찬은 무거운 책임이자 대단한 영광이었다. 특히 학자의 연보를 편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학문적 후계자라는 의미로 통했다. 예컨대 퇴계 이황의 연보는 그의 4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유성룡柳成龍이 편찬했다. 그렇다면 퇴계와 쌍벽을 이루는 율곡 이이의 연보는 누가 편찬했을까? 그가 바로 조선 후기 학자 박세채朴世采 1631~1695이다.

율곡의 연보를 편찬한 박세채

박세채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그런 유학자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박세채는 문묘文廟에 배향된 인물이다. 공자의 신위를 모신 문묘에서 제사를 받는 것은 유학자에게 최고의 영광이다. 학문적 업적이 공인을 받고 처신에 흠결이 없어야 가능한 일이다. 문묘에 배향된 조선 유학자는 14명에 불과한데, 박세채가 마지막이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박세채는 서인西人의 명문가 출신이다. 조부는 영의정을 지낸 박동량朴東亮, 외조는 한문사대가의 한 사람인 신희申欽으로 역시 영의정을 지냈다. 백부 박미朴瀾는 선조 임금의 사위였다. 아내는 좌의정을 지낸 원두표元斗杓의 조카딸이다. 고관대작이 즐비한 집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학자 김상헌金尙憲과 김집金集을 스승으로 삼았고, 훗날 송시열宋時烈의 손자를 사위로 맞이했다. 서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학맥, 혼맥으로 두루 맺어져 있었다.

박세채는 18세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20세에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묘文廟 종사從祀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

생애의 모든 것을 망라한 연보

연보는 생애의 주요 사건을 연도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력서를 떠올리면 이해가 빠르다. 다만 학력과 경력을 열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이력서와 달리, 연보는 생애의 거의 모든 사건을 망라한다. 옛사람의 연보는 책으로 엮을 정도로 자세하다.

연보의 기원은 중국 송나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출판문화 발달로 문헌이 널리 보급되고 학통을 중시하는 성리학이 유행하면서 제자가 스승의 생애를 연보로 정리하는 관행이 생겼다. 특히 송나라 성리학자 주희朱熹의 연보가 모범이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보는 고려 문인 이규보李奎報의 연보이며, 성리학이 도입된 고려 말부터 연보가 쏟아져 나왔다. 민사평閔思平, 이곡李穀,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 등의 연보가 문집에 실려 전해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연보 편찬은 더욱 활발해졌다. 주자학이 지배 이념으로 자리

나자, 유생들을 주도하여 동맹 휴학을 벌였다. 그는 이 일로 효종 임금에게 엄한 하교를 들은 후 관직에 나갈 생각을 접고 학문과 저술에 몰두했다. 특히 예학禮學에 밝아 송시열조차 그와 상의할 정도였다.

박세채는 53세가 되어서야 송시열의 추천으로 겨우 관직에 나갔다. 숙종은 그를 융숭히 대우하며 조정에 붙잡아두려 했지만 박세채는 물러나려고만 했다. 실랑이가 반복될수록 관직은 높아졌고, 결국은 좌의정에까지 올랐다. 정치와는 거리를 두었으나 송시열과 윤증이 대립하여 노론과 소론이 갈라지자 중재에 나섰고 당파의 대립을 우려하여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황극탕평론 皇極蕩平論’을 마련했다. 이는 훗날 영·정조 시대 탕평책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박세채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그중에는 율곡의 생애와 저술을 정리하는 작업도 포함되었다. 본디 율곡의 문집은 1611년에 간행되었다. 여기에 4장짜리 연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나치게 간략했다. 그래서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율곡 연보의 편찬을 시도했다. 1664년 송시열이 우계 성혼의 연보와 함께 편찬을 마쳤지만 이 역시 율곡의 위상에 비하면 여전히 소략했고 오류도 적지 않았다.

송시열의 뒤를 이어 율곡의 연보를 편찬한 사람이 박세채다. 박세채가 편찬한 율곡 연보는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량은 많지 않으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한가이다. 박세채는 율곡 연보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오류와 새로운 사실을 『율곡선생 연보 고증 栗谷先生年譜攷證』 3권으로 따로 엮었다. 박세채가 편찬한 율곡 연보는 송시열의 호평을 받았다. 조선 초기 사람파의 영수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의 연보도 박세채의 손에서 나왔다. 연보 편찬은 단순히 생

* 효종이 즉위한 직후 이이와 성혼을 문묘에 모셔 제사지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는데, 서인은 찬성하였으나 남인이 반대하여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이와 성혼은 숙종조에 와서야 비로소 문묘에 모셔졌다.



애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박세채의 연보를 통해 그들은 조선 성리학의 정통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보를 편찬한 박세채 역시 그들의 후계자로 자리매김했다.

총 4권으로 구성된 『남계선생연보』

박세채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제자들도 스승의 연보를 편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박세채는 생전에 자신의 생애와 저술을 어느 정도 정리해 두었다. 제자 김간金幹이 이를 바탕으로 행장行狀과 어록語錄을 편찬하고, 1700년 연보 2권을 완성했다. 다음은 문집을 간행할 차례였으나 박세채의 제자들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며 의견이 엇갈리는 바람에 간행이 늦어졌다.

박세채의 문집 『남계집南溪集』은 1732년 비로소 간행되었다. 이후 『남계선생연보부록南溪先生年譜附錄』이라는 이름으로 생애의 중요 기록들이 간행되었으나 연보는 끝내 간행되지 못했다. 간행되지 못한 채 원고 상태로 남아 있는 박세채의 연보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남계선생 연보』 古貴2511-25-3다. 이 책은 김간의 연보를 바탕으로 수정 증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유일하게 전하는 박세채의 연보다. ‘도암陶菴’이라는

『남계선생박문순공문집
정집, 속집, 외집 南溪先生朴文純公文集：
正集、續集、外集』 한고려46-가49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장서인藏書印이 찍혀 있는 점으로 보아 도암 이재李穰 소장본으로 추정된다. 이재는 송시열의 학통을 계승한 노론계 학자다. 첫머리에는 간략한 족보가 실려 있다. 이어서 1631년 6월 24일 한양 양생방養生坊 창동倉洞(현 중구 남창동)에서 출생하였다는 기록으로 시작하여, 1705년 8월 평산平山 면곡綿谷으로 묘소를 이장하였다는 기록으로 끝맺었다. 연도는 명나라의 마지막 연호인 송정崇禎으로 표기하고, 그 해의 간지干支와 박세채의 나이를 함께 기록했다. 이어서 각 연도의 중요한 사건을 큰 글씨로 기록하고, 자세한 설명은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남계선생연보』는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은 1세부터 50세까지, 권2는 51세부터 53세까지, 권3은 54세부터 58세까지, 권4는 59세부터 세상을 떠나고 10년 뒤까지이다. 50대의 행적이 가장 자세한데, 박세채가 관직에 올라 당쟁에 휘말린 시기다. 말년에는 은둔하여 강학과 저술에 집중하였으므로 말년의 기록은 간략한 편이다. 연보에 기록된 사건은 다양하다. 국가의 주요 사건, 주변 인물들의 삶과 죽음, 관직의 변동과 같이 비교적 중요한 사건부터, 이사나 여행처럼 사소한 사건도 등장한다. 수많은 저술을 남긴 학자였으므로 어느 해에 무슨 저술을 완성했는지도 꼼꼼히 기록했다. 상소문과 편지의 중요 부분도 인용되어 있다. 분량이 비교적 많은 건 이 때문이다.

참고로 퇴계와 율곡의 연보는 모두 2권에 불과하지만, 이후 편찬된 연보는 점차 분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정경세鄭經世, 송준길宋浚吉, 이윤택李惟泰 등의 연보는 4권, 송시열의 연보는 무려 11권이다.

장유승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을 거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쓰레기 고서들의 반란』, 『일일공부』, 번역서로 『현고기』, 『동국세시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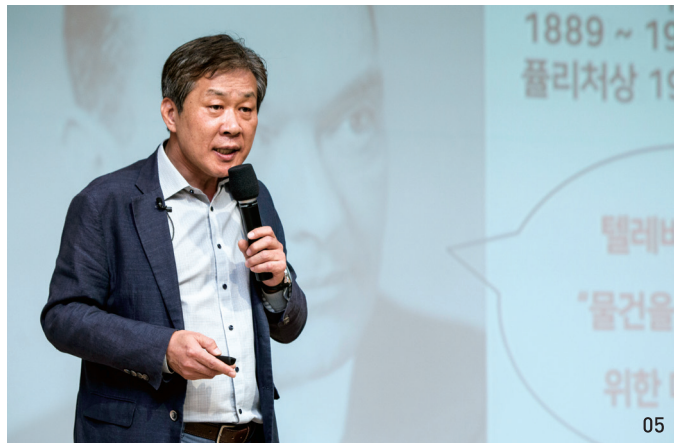
미래로 향하는 준비, 연보

조선시대 사람들은 조상과 스승의 연보를 만들면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보가 완성되면 그 인물은 평범한 인간에서 위대한 유학자로 다시 태어났다. 후손과 제자들의 위상도 달라진다. 이것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연보 편찬에 열중한 이유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인생도 정리하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누구나 자기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다치바나 다카시立花隆은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자서전 쓰기 강좌를 개설했다. 백세 인생에 정년퇴직은 인생 2막의 시작이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간 점검이다. 과거를 돌아보아야 미래를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서전 쓰기는 인생의 한 단계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작업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자기 역사를 쓴다는 것』 바다출판사, 2018). 다치바나 다카시가 자서전 쓰기에 앞서 먼저 시킨 일이 바로 ‘자기 역사 연표’ 만들기다. 일종의 연보다. 자기 생애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도순으로 정리된 연보가 필요하다. 조선시대에도 자기 연보를 자기가 만든 사람이 드물지 않았다. 지난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 그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지난 1년 동안 내가 한 일을 차례대로 적어보자. 무엇보다 의미 있는 새해맛이 준비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이종묵, 『한국 문인 연보 연구』, 『장서각』 5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유새롭, 「17세기 서인의 학통의식과 율곡연보의 편찬」, 『한국사론』 52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6.



시간을 나르는 책



강연을 읽는 시간

재야의 교수들과 함께 한 지식 공유의 장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강연회

01 제1회 차 강연을 통해 아랍 문화에 대해 소개한 방성아 아랍어 통역사

02 '창경궁과 사람들'을 주제로 진행된 이소영 한국사 강사의 강연회

03 10월 8일 열린 최윤경 교수의 '현명한 의료소비자 되기' 강연회

04 인공지능 기술과의 공존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서승원 실장의 강연회

국립중앙도서관이 올 가을 · 겨울에 걸쳐 선보이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강연회」는 자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도서관 이용자들이 강연자가 되어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다. 한국과 세계의 문화 이야기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까지, 풍성한 이야기가 넘쳐났던 강연회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자.

도서관 이용자, 강연자가 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9월부터 총 5회에 걸쳐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연회가 특별한 이유는 도서관이 특정 강사를 지정해 초청하는 방식이 아닌, 강연자로 나설 지원자를 공모해 도서관 이용자가 강연자가 될 수 있는 열린 기획을 했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용자 간 지식 공유 문화 활성화를 도모할 이번 강연회를 위해 숨어 있는 '재야의 교수' 찾기에 나섰다. 강연자로 나설 지원자 공모 결과, 대학교수 및 강사부터 작가, 교사, 연구원, 변호사 등 다양한 계통의 전문가 총 111명이 지원 신청했다. 서면 심사와 대면 인터뷰로 이어진 꼼꼼한 심사를 거쳐 10명의 강연자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지난 9월 17일 열린 1회 강연을 시작으로, 강연자들을 총 50분간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청중들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다면 현재(12월 4일 기준) 4회 차까지 진행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강연회」에서는 어떠한 유용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짧게나마 그동안 진행된 강연 내용을 소개한다.

05 영상 미디어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방법을 설명한 백항규 PD

06 천만 영화 속에 숨은 흥행 코드와 영화 감상법에 대해 강연한 이충근 대표

07 '유언 제대로 남기기'를 주제로 열린 정진 변호사의 강연회

08 고령화 시대의 자산관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주상철 박사

제1회

1강 · 방성아 대표

앗쌀라무 알라이쿰! 아랍 세계와 아랍 문화의 이해

2강 · 이소영 한국사 강사

창경궁과 사람들

9월 17일에 열린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강연회」 첫회는 한국과 세계 문화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준비되었다.

첫 주자로는 아랍어 동시통역사이자 전문강사인 방성아 대표(아라비아)가 무대에 올라, 우리에게 낯선 세계인 아랍 문화를 소개했다. 아랍 문화는 의외로 생활 곳곳에서 만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가 평소 많이 먹는 시럽은 아랍어 ‘샤랍’에서, 커피는 ‘까후와’에서 비롯된 말이다. 방성아 대표는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랍 문화의 예시를 들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몰랐던 아랍 문화를 흥미롭게 소개했다.

이어진 두 번째 강연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의 삼성맨에서 역사강연 전문기업 창업자가 된 이소영 한국사 강사가 ‘창경궁과 사람들’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창경궁은 조선왕조에서 세 번째로 건립된 궁궐로 성종이 할머니인 정희왕후, 어머니 인수대비, 작은어머니 안순왕후를 모시기 위해서 기존 수강궁을 크게 확장하며 만들어졌다. 현대에는 궁중 여인들의 삶과 암투를 그린 다양한 사극 드라마의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소영 강사는 〈인수대비〉, 〈꽃들의 전쟁〉 등 드라마에 등장한 창경궁 사례를 들어 역사적 사건과 기습 아픈 궁중사를 설명했다. 1840년대에 김정호가 제작한 서울지도인 수선전도와 창경궁·창덕궁의 전경을 조감도로 표현한 동궐도^{1820년대 후반} 등의 고지도를 통해 창경궁을 살펴보기도 했다.

제2회

1강 · 최윤경 교수

현명한 의료소비자 되기

2강 · 서승원 실장

거부할 수 없는 인공지능 기술과의 공존, 그 오해와 진실 따라잡기

10월 8일에 진행된 제2회 차 강연에서는 의료와 IT 분야 연구자가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만 비전공자들은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해당 분야에 한 발자국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첫 강연자로 나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최윤경 교수는 ‘현명한 의료소비자 되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한국의료질

향상학회 등에서 환자중심의 의료 환경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그는 환자의 가치와 요구를 존중하는 환자 중심 의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때 고려할 기준과 의료기관 평가 정보 활용법 등의 유용한 정보도 다양하게 소개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분야 현직 서비스 기획자인 서승원 실장(한국IBM)이 ‘거부할 수 없는 인공지능 기술과의 공존, 그 오해와 진실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펼쳤다. AI 기술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막연하게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많다. 서승원 실장은 AI의 현재 수준과 전망, 도전 과제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AI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다양한 AI 기술을 비롯해 데이터 기획자, AI 엔지니어, AI 윤리 전문가 등 AI 시대에 새롭게 등장할 직업들을 전망하는 시간도 가졌다.

제3회

1강 · 백항규 PD

텔레비전을 위한 변명

2강 · 이충근 대표

한국 흥행영화 속 숨겨진 플롯(plot)의 비밀

10월 29일 진행된 세 번째 강연은 현대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인 영상 및 영화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되었다.

먼저 〈자연다큐멘터리〉, 〈환경스페셜〉, 〈걸어서 세계 속으로〉 등 KBS의 교양문화프로그램들을 제작해온 KBS 백항규 PD 진행으로 ‘텔레비전을 위한 변명’ 강연이 열렸다. 그는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웃고 울게 한 영상 미디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인식에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설명했다. 평소 무심코 즐겨왔던 영상미디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성찰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대중영화 강사이자 미디어 연구자인 이충근 대표(이충근대중미디어문화연구소)가 ‘한국 흥행영화 속 숨겨진 플롯(plot)의 비밀’을 주제로 대중 상업 영화 속에 숨겨진 키워드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충근 대표는 〈태극기 휘날리며〉, 〈베테랑〉 등 엄청난 인기를 누린 ‘천만영화’들이 지닌 공통적인 키워드를 소개하며 그저 재미있게 보고 즐겼던 영화에 숨은 비밀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더 나아가 대중 상업 영화를 재밌게 감상하는 방법과 자신이 느낀 재미와 감동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강연이었다.



재야의 교수들과 함께한 지식 공유의 장
청중들이 질문을 하거나 집중해서 강연을 듣고 있다



제4회

1강 · 정진 변호사

유언 제대로 남기기

2강 · 주상철 박사

고령화와 가계의 자산관리

네 번째 강연은 11월 19일에 법률 분야와 경제 분야 전문가가 강연자로 나선 가운데 진행됐다. 진입장벽이 높은 법과 경제를 친숙하게 이해하고 직접 삶에 적용시켜볼 수 있는 알찬 내용들이 총 100분의 강연시간 동안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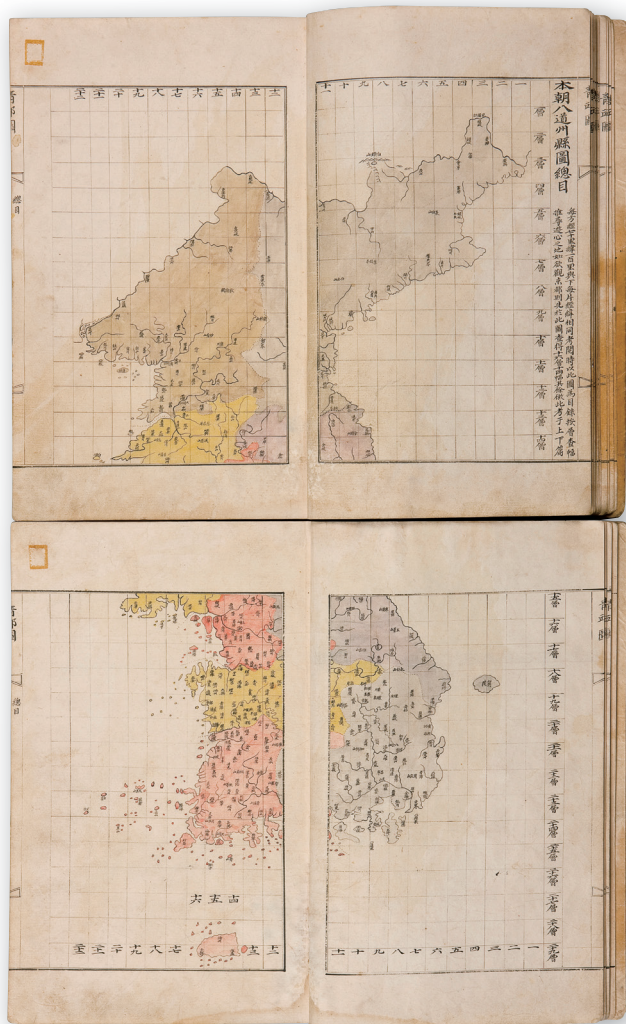
20년 차 변호사인 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조율)는 ‘유언 제대로 남기기’라는 이색적인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다. 우리 사회에는 죽음에 관해 말하기를 금기시하는 분위기와 법률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마지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진 변호사는 유언의 필요성부터 민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유언 방법, 실행 과정 등을 꼼꼼하게 설명해주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직접 만난, 유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다양한 사례들이 이해를 돕고 강연의 풍성함을 더했다.

이어서 국민연금공단, 교보증권 등에서 오랜 기간 자산운용 및 투자전략을 연구해온 주상철 박사가 강연자로 나서 ‘고령화와 가계의 자산관리’를 주제로 강연했다. 고령화 시대에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지는 모든 현대인이 지닌 숙제다. 주상철 박사는 오랜 시간 쌓아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가계자산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자산관리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한 후 적절한 자산 배분과 다층 연금보장체계를 통해 노후자금 마련하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다. 노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바람을 넘어, 구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해볼 수 있었다.

12월 10일 제5회 차 강연(고소설에서 배우는 사랑의 기술, 사랑하고 싶다면 이들과처럼’ 고전문학 연구자 김지연 교수, ‘나도 시 낭송가!’ 이해정 한국시낭송예술협회장)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국립중앙도서관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강연회」는 한 권의 책만큼이나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이들이 강연자가 되어 청중을 만나는 뜻깊은 자리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앞으로도 책으로 만들 어지기 전인 개인의 경험 및 지식도 공유·전송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강연회」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으로도 공유된다.

끝없는 고민 끝에 탄생한 김정호의 야심작

『청구도 靑邱圖』



4면에 걸쳐 수록된
〈본조팔도주현도총목〉

우리나라 최고의 고지도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최고의 고지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김정호^{?)~1866}의 『대동여지도』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22첩을 모두 펴서 연결한 『대동여지도』를 본 사람이라면 남북 6.6m에 이르는 거대한 우리나라의 모습, 흰색 종이 위에서 검은색 먹선의 산줄기가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장관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세계에 지도 하나만 소개하려면 선택할, 세계의 모든 사람이 감탄할 우리나라 최고의 고지도 걸작은 나에게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아니라 『청구도』이다.

『대동여지도』가 아니라 『청구도』라니. 고지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동여지도』는 들어봤어도 『청구도』는 생소할 가능성이 높으니,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지면의 한계가 있어 제대로 소개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 김정호의 『청구도』가 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최고의 고지도 걸작이라 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소개하려 한다.

김정호에게 영감을 준 신경준의 고을지도책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를 그렸지?” 이 문구를 본 사람은 당연히 현대의 누군가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보고 한



『청구도』 보물 제1594-1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말로 생각할 것 같다. ‘인공위성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저런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를...’이라는 문구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니 이상할 건 없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년쯤 전, 지도를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을 세운 ‘지도출판사 사장’이었던 20대의 김정호도 어떤 지도책을 입수하여 보고는 놀라면서 무심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를 그렸지?”라는 말을 내뱉은 적이 있을 것이다.

20대의 김정호가 감탄한 지도의 원 제작자는 신경준^{1712~1781}이다. 1769년 12월 24일 영조 임금이 신경준을 불러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의 편찬 책임자로 임명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신경준은 고을 지도의 제작까지 제안하여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 해인 1770년 8월 14일에 모두 연결하면 남북 약 5.85m인 거대한 우리나라 전도 족자 1축, 도별지도 8장, 고을지도책 8책을 완성하여 영조 임금에게 바쳤다.

우리나라 전도와 도별지도는 너무 커서 인정전에 걸어놓는 등의 전시 효과를 제외하면 별로 쓸모가 없어 더 이상 베껴서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8책의 고을지도책은 크기가 작아서 국가기관이나 고위 양반이 꽤 베껴 사용하였고,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버전의 고을지도책도 나왔다. 바로 보물 제1593

호로 지정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3책의 『해동여지도』 계통이다. 김정호가 입수하여 보고는 무심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를 그렸지?”라고 감탄했을 그 지도책이다.

획기적으로 ‘찾아보기’가 첨부된 청구도의 탄생

『해동여지도』는 신경준의 고을지도책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버전의 지도책이었지만 김정호가 보기에 딱 하나의 단점이 있었다. 바로 ‘색인索引’ 기능이었다. 고을마다 분리하여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도 초보자들은 고을 사이의 연결 관계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전국 모든 고을을 연결하여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도출판사 사장 김정호가 『해동여지도』를 자세하게 검토하면서 갖게 된 최대 고민이다. 물론 단순히 생각하면 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 『해동여지도』에 수록된 모든 고을 지도는 인접한 고을의 경계선과 딱 맞도록 그려져 있다. 그래서 모든 고을을 연결해서 그리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용의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모두 연결하면 남북 6~7m의 거대한 우리나라 전도가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큰 지도를 펼쳐놓고 볼 공간도 없고, 펼쳐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김정호는 간단하게 이 해결책을 찾아냈다. 모두 연결해서 거대한 우리나라 전도를 만든 후 전국을 남북 100리 동서 70리의 사각형으로 잘라서 책으로 묶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또다른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 『해동여지도』에는 수록된 고을 지도 순서대로 고을의 이름을 기록한 ‘찾아보기’가 가장 앞쪽에 있어 찾고자 하는 고을 지도를 찾기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모든 고을을 연결해서 그린 후 사각형으로 잘라 묶어서 책으로 만들면 ‘찾아보기’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만들어봐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 사람들이 사서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전의 지도 편찬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잘라 묶어서 책으로 만든다는 생각은 미완의 아이디어에 머물 뿐이다.

‘찾아보기 쉬운 지도책을 만들 방법은 없을까.’ 김정호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두 번 정도의 실험적인 작품을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1834년에 새로 개발한 ‘찾아보기’를 앞쪽에 첨부한 2책의 『청구도』를 세상에 내놓았다. 근대 이전의 한중일에서 그런 ‘찾아보기’가 첨부된 대축척 지도책은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획기적인 방식이었다.



『청구도』의 서울과 강화도.
서울 오른쪽 여백에 '제16층14(판)[第十六十四]'이,
강화도 왼쪽 여백에 '제16층15(판)[第十六十五]'이 적혀 있다

현대의 대중 지도책과 똑같은 청구도

『청구도』는 전국을 모두 연결해서 그리고 찾아보기 쉽게 만든 대축척 지도책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왔다. 물론 요즘처럼 지도책을 만들어 서점에 쌓아놓고 파는 형태는 아니었다. 손으로 그러서 파는 주문 판매 방식이었다.

김정호의 이름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오랜 고민 끝에 만들어낸 훌륭한 ‘찾아보기’ 방식이었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웠다. 그래서 계속 실험하고 고민한 후 <본조팔도주현도총목 本朝八道州縣圖總目>이라는 획기적인 찾아보기지도인 색인도索引圖를 개발하여 이를 앞쪽에 수록한 개정판 『청구도』를 제작하여 세상에 다시 내놓았다.

<본조팔도주현도총목>은 네 면에 걸쳐 우리나라 전도를 그려놓고 남북 100리 동서 70리 간격의 사각형으로 나눈 후 남북으로 29층 동서로 22판의 번호를 붙였다. 그리고 지도책 각 면의 지도 안쪽 여백에는 ‘제1층1(판)’부터 ‘제29층22(판)’까지 <본조팔도주현도총목> 안의 번호를 순서대로 적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함경도의 관찰사 소재지인 함흥 지역을 찾고자 하면 먼저 <본조팔도주현도총목>에서 함흥이 ‘제9층11(판)’에 있는지 확인하고는 지도책 안에서 ‘제9층11(판)’ 번호의 지도 면을 찾아가면 된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자가용을 몰고 여행을 다니던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갖고 다니던 ‘10만:1 도로지도’의 앞쪽에도 사각형으로 나눈 후 2부터 248까지 번호를 붙인 우리나라(남한) 전

체의 찾아보기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어느 지역을 찾고자 할 때 찾아보기지도에서 먼저 몇 번에 해당 지역이 있는지 확인한 후 그 번호의 페이지를 찾아가면 원하는 지도를 볼 수 있다. 현대의 ‘10만:1 도로지도’와 개정판 『청구도』의 찾아보기 방식은 똑같은 것이다.

지도출판사 사장이자 진정한 학자

개정판 『청구도』의 <본조팔도주현도총목>은 찾아보기의 관점에서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한중일의 고지도 중 <본조팔도주현도총목>과 같은 찾아보기지도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정호가 기존의 무언가를 참조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안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호는 『청구도』에서 최고 수준의 찾아보기지도만 개발해낸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지도책을 만드는 방법, 지도를 이용하면서 발견되는 오차를 이해하는 방법, 지도 위의 거리를 알아내는 방법 등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10만:1 도로지도’라 불리는 현대의 대축척 대중 지도책에서 만나는 모든 기법이 개정판 『청구도』에 다 들어 있다. 게다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1849년까지 찾아보기 방법은 같으면서도 이용의 관점에서 내용이나 표현 방식을 달리한 개정판 『청구도』를 두 번이나 더 편찬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이런 창안 모두를 김정호 스스로 연구하여 만들어냈으니, 그는 하루라도 연구하지 않으면 몸에 쏙이 쏙이는 진정한 학자였다.

김정호는 판매용 지도를 정말 많이 만들었고 그의 지도는 인기가 좋았다. 그래서 그는 돈을 꽤 벌었다. 하지만 지도 판매로 벌어들인 돈 중 생활비를 제외한 돈은 새로운 지도 제작과 지리지 편찬에 모두 투자했다.

지도출판사의 사장이자 진정한 학자! 두 가지 수식어 중 하나라도 빼먹으면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던 김정호의 진면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내가 근대 이전 세계의 모든 대축척 지도책을 보지는 않았지만, 세계에서 『청구도』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대축척 지도책을 찾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다.

이기봉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전시, 고문헌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저서로는 『고대도시 경주의 탄생』, 『평민 김정호의 꿈』, 『조선의 지도 천재들』, 『근대를 들어올린 거인 김정호』, 『슬픈 우리 땅이름』, 『천년의 길』, 『임금의 도시』, 『난 고3 아빠고 파이팅을 맡고 있어』 등이 있다.

짧은 이야기 긴 여운, 보석같은 단편을 길어 올리다



Celebrating the 100th Anniversary
“Widely regarded as the nation’s most prestigious awards for short fiction.”
—THE ATLANTIC MONTHLY

●●● THE O. HENRY
●●●●●●●● PRIZE
●●●●●●●● STORIES
2019 ●●●●●●●●●●
THE BEST SHORT ●●●
STORIES OF THE YEAR

includes essays on their favorites by jurors
LYNN FREED
ELIZABETH STROUT
LARA VAPNYAR
Edited by Laura Furman

책 나르는 사람들

열 번째 이야기 오 헨리 상

오 헨리 상 The O. Henry Prize Stories 은 단편소설 대가인

오 헨리를 기리고 단편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1919년 첫 회를 개최한 이후 꾸준히 열리며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다. 역대 수상자로는 스티븐 킹, 레이먼드 카버, 앨리스 먼로,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등이 있다.



O. Henry Prize Stories

오 헨리 상

오 헨리 상 The O. Henry Prize Stories 은 단편소설의 대가인 오 헨리를 기리기 위하여 작가 사후 9년 만인 1919년부터 열린 문학상이다. 매년 전년도 한 해 동안 지면에 실린 수많은 단편소설 가운데 뛰어난 작품 20편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묶여 발행된다. 올해는 오 헨리 상이 개최 10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01
오 헨리 상 100주년 기념 에디션

02
2019년 오 헨리 상 공식 이미지



100주년을 맞이한 미국의 단편소설 문학상

오 헨리 상

따뜻한 시선을 지닌 단편소설의 대가, 오 헨리

오 헨리 O. Henry 는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겨울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작가이다. 죽음을 앞둔 소녀를 통해 따뜻한 인간애를 그린 「마지막 잎새」, 반전을 통해 가난한 부부의 사랑을 뭉클하게 전한 「크리스마스 선물」 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유의 위트와 반전,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특징이다. 오 헨리는 10년 남짓한 짧은 활동 기간 동안 300편에 달하는 단편소설을 집필하였으며 단편소설이 하나의 문학 장르로 인정받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듣는다. 그는 모파상, 체호프와 더불어 세계 3대 단편소설 작가로 불리기도 한다.

오 헨리의 작품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날까지 회자되며 여러 출판사를 통해 다양한 판본으로 출간되어 왔다. 2017년에는 그의 주요 단편 28편을 묶은 『오 헨리 단편선』이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350번으로 출간되었으며, 올해에는 오디오콘텐츠 플랫폼 오디오클립이 배우 정해인의 목소리로 녹음한 오 헨리의 작품 7편을 오디오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오디오북으로 제작된
『오 헨리 단편선』 작업에 참여한
배우 정해인 © audioclip



오 헨리는 1862년 9월 1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 William Sydney Porter 이다. 텍사스와 온두라스, 뉴욕 등 여러 지역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그는 성인이 된 후 약사부터 지방악단의 기타 연주자, 지역신문기자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였다. 이후 오스틴에 있는 제1국립은행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습작 활동을 시작했으나 횡령죄로 오하이오주 연방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된다. 오 헨리의 작품 활동은 수감 생활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교도소에서 집필에 매진하며 본명인 윌리엄 시드니 포터 대신 오 헨리라는 필명을 짓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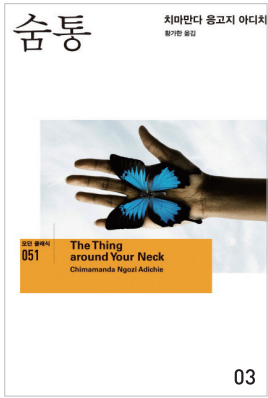
1902년 석방 후에는 뉴욕으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걸었다. 1903년 12월부터 1906년 1월까지 뉴욕의 『월드 World』에 매주 글을 기고했으며 1904년에 첫 작품집인 『캐비지와 왕 Cabbages and Kings』과 단편 「경찰관과 찬송가 The Cop and the Anthem」도 발표했다. 이후로도 단편 「마지막 잎새 The Last Leaf」, 1905와 단편집 『400만 The Four Million』, 1906, 『서부의 마음 Heart of the West』, 1907, 『도시의 음성 The Defeat of the City』, 1908 등을 차례로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다가, 1910년 6월 5일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단편소설의 가치를 드높이는 오 헨리 상

오 헨리 상 The O. Henry Prize Stories 은 오 헨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문학상으로 오 헨리 사망 후인 1918년 4월, 그의 친구들이 호텔에 모여 위원회를 구성한 후 1919년부터 시행되었다. 1919년 이후 매년 꾸준히 열리면서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유서 깊은 문학상이다. 단편소설의 대가였던 오 헨리를 기리는 상인만큼 단편소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오 헨리 상 초창기에 수상작품 편집인으로 활동한 콜튼 윌리엄스 Blanche Collon Williams 는 이 상의 목적을 “단편소설의 기예를 장려하고 신예 작가들을 독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오 헨리 상은 매년 전년도 한 해 동안 뉴요커 The New Yorker 나 아틀란틱 먼슬리 The Atlantic Monthly , 하퍼스 매거진 Harper's Magazine 등 유명 문예지 및 잡지에 영어로 실린 단편 가운데 뛰어난 역량을 보인 작품을 20편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01
2006년 오 헨리 상 수상자인
앨리스 먼로
- 02
2008년 오 헨리 상 수상자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 03
2008년 수상작 「미국 대사관」이 수록된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의 단편집 「숨통」



전 세계적으로 탄탄한 독자층을 지닌 수많은 작가들이 오 헨리 상을 거쳐 갔다. 대표적인 수상자로 앨리스 워커(친족의 유령들, 1987), 레이먼드 카버(심부름, 1987), 스티븐 킹(검은 정장의 악마, 1994),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미국대사관, 2008) 등이 있다. 201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앨리스 먼로 역시 2006년에 단편소설 「열정 Passion」으로 오 헨리 상을 수상했다. 아틀란틱 먼슬리는 오 헨리 상을 두고 “짧은 소설에 관한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라고 그 가치를 평가기도 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만큼 수상 방식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왔으며 지난 2003년부터는 매년 심사위원 3명을 임명한 후 이들의 투표로 총 20편의 단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심사위원들은 작가명과 출판사, 잡지명 등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의 원고를 읽고 심사하며 이때 서로 상의나 토론 없이 독자적으로 선정작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20편의 수상작들은 매년 앵커북스 Anchor Books를 통해페이퍼백 형태로 출간된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된 오 헨리 상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지면에 실린 수천 편의 작품 중 20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올해 심사위원은 린 프리드 Lynn Freed,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Elizabeth Strout, 라라 바니아르 Lara Vapynar였으며 테사 해들리 Tessa Hadley, 레이첼 콘도 Rachel Kondo, 패트리샤 엥겔 Patricia Engel을 포함한 20명의 작가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수상작들은 앵커북스를 통해 「100주년 기념 에디션」으로 지난 9월 출간되었다. 한편, 11월 25일에는 미국 뉴욕의 심포니스페이스에서 오 헨리 상 수상자 출신인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가 호스트를 맡은 100주년 기념 행사 Selected Shorts: O'Henry Prize at 100 & Chimamanda Ngozi Adichie가 개최되기도 했다. 오 헨리 상에 관한 최신 소식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랜덤하우스 홈페이지, 「오 헨리 단편선」 현대문학 중 저자 소개

해외 사서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낸 5개월간의 기록

2019 문화동반자 사업 연구 발표회

책 나르는 사람들
사서의 기록

문화동반자 사업 CPI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5년 시작한 문화 분야 대표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6년부터 ‘해외사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ODA 수원국에서 4명의 참가자를 선정하여 5개월간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연수 프로그램에서도 부탄,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4개국에서 온 사서들이 다양한 경험 및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를 마무리하며 10월 24일 진행되었던 해외 사서들의 연구 발표회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글 김혜린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 자료 수집에 관한 연구

International Acquisitions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우겐 초든 Ugyen Choden, 부탄 국립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분야의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 도서관 분야 전체의 장서 개발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목표는 모든 국내 출판물을 2부씩 수집·보관하고 한국 관련 국외 출판물은 최소 1부 수집하는 것이다. 이는 국외에서 발행된 한국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국가 문헌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타 도서관과 교류하여 국내의 한국 관련 정보를 수집해왔고 미래 세대를 위해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전달해왔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90개국 257개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서비스 연구

Focused on the library services of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야다나르 우 Yadanar Oo, 미얀마 국립도서관

연구의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서비스 관련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었다. 2012년부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한국공공도서관들의 표준 역할을 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서비스와 기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나아가 장애 유형과 독서 보조기기 그리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발행한 대체 자료를 연구했다. 본 연구는 우리 국립도서관이 도서관 시설과 장애 유형별 독서 보조기기 그리고 장애인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문화동반자 연구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상욱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

리잘도서관의 한국자료실을 통한

한국 문화 진흥 연구

Promoting Korean Culture through the Window on Korea Collection of the Rizal Library

제네자 델라 크루즈 Genezah Dela Cruz, 필리핀 아테네오 드 마닐라 대학도서관

한국과 필리핀은 1949년 외교 협력 관계 수립 이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70년 동안 우호적인 한-필리핀 관계는 정치·경제뿐 아니라 문화 부문의 인적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5개월간 아테네오 드 마닐라 대학 리잘도서관 한국자료실의 특별 장서 중 하나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 7년 전 국립중앙도서관과 리잘도서관은 한국자료실 프로그램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리잘도서관의 한국자료실: 국제 자료 교환과 파트너십'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중 연구자들은 일부 자료(특히 한국어 출판물)의 이용률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통해 한국자료실 설치 기관들의 프로그램 및 홍보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벤치마킹하려 한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의 디지털 서비스 연구

The Providing of Digitalized Services at Digital Library, National Library of Korea

띠비 찜 Theavy Chap, 캄보디아 의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디지털 자원을 수집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관련 정보, 서비스,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과 캄보디아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를 비교·분석했다. 두 도서관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은 다양한 ICT 시설들을 사용한 고도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캄보디아 디지털도서관은 정보 기기 및 기술면에서 부족하다. 이 연구를 통해 캄보디아 디지털도서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려 한다.



기억 저편에 유폐된 왕들에게 바치는 헌사

글 장동석 『뉴필로소퍼』 편집장, 출판평론가

『유배중인 나의 왕』
아르노 가이거, 문학동네

여기, 기억을 잃어가는 한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는 은퇴, 연이은 아내와의 별거 탓인지 모든 일에서 손을 놓고 무기력 상태에 빠졌다. 종종 기억을 잃고 고간 하지 않던 일에 집착하기도 했다. 자녀들은 “원래 성미가 조금 괴팍한 편”이었기에 일시적 충격이라고만 생각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시간은 더딘 듯 빠르게 흘렀고 그 사이 남자는 일시적 충격이 아닌 알츠하이머로 판명이 났다. “병은 아버지에게 그물을 던졌다. 교묘히 눈에 띄지 않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아버지는 이미 꼼짝없이 그물에 갇혀 있었다.” 독일어권 문학에서 몇 년 전부터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아르노 가이거의 『유배중인 나의 왕』 도입부다. 한국이라면 이쯤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가족의 모습을 그려낼 수밖에 없다. 고령화사회에 이어 고령사회로, 다시 초고령사회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한국에서 이제 치매나 알츠하이머는 과장을 조금 보태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여겨진다. 실제로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 가정에서 치매 등을 비관해 일어나는 일련의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바로 옆에서 목격하고 있다.

『유배중인 나의 왕』은 작가 아르노 가이거의 가정에 닥친 아버지의 알츠하이머와 이어지는 자녀들의 혼란상,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대로 담은 자전적 소설이다. 그의 가족도 여느 가족처럼 처음에는 무너졌다.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서 아버지의 삶이 먼저 실타래처럼 얽혀버렸다. 어머니는 이미 발병 전에 “다른 곳에서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는 삶”을 찾아 떠났는데, 아버지는 “이미 죽어버린 관계에 끝까지 마음속으로 매달려 잃어버린 과거에 헌신”하려고 했다. “아버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다”라던 자녀들은 “한 명씩 한 명씩 집을 나가 뿔뿔이 흩어졌다.” 기실 그들은 “제때 손을 쓰지 못한” 자신들에게 화가 났던 것이다.

평생 살아온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며 길을 나서는 아버지를 보며 작가는 말한다. 스스로 하는 다짐이었을 것이다. “이제 아버지가 내 세계로 건너올 수 없으니 내가 아버지에게로 건너가야 한다.” 비록 온전한 기억을 잃어버렸을지언정 그가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우리 사회에서 온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한 인격임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기 너머에서, 아버지의 현재 정신 상태의 한계 내에서, 객관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우리 사회 저편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사람이다.”

작가는 삶의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 더욱이 기억을 잃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이들에게도 오롯한 삶이 있으며 그렇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살아가고 기억하고 사랑한 나날들을 잊었지만 인간으로서의 격만은 잊혀서는 안 된다고 작품 내내 말하고 있다.

하나둘 집을 나갔던 형제들이 돌아왔다. 여동생 헬가는 주말에 아버지를, 남동생 베르너는 집과 정원을 돌봤다. 별거 중인 어머니도, 빈에서 생활하며 일하는 작가 ‘나’도 “머칠 아니면 몇 주씩 다니러 와서” 남편과 아버지를 돌봤다. 그럴 때면 여동생과 남동생이 심을 얻었다. “모두가 절망하지 않고 각자 능력껏 힘닿는 데까지 나름대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해 나간 것이다. 기억을 잃어버린 남편을,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어디 쉽기만 했을까. 그럼에도 “가족의 유대감은 더욱 끈끈해졌다”고 하니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현실이 교차된다. 물론 가족이 “각자 힘닿는 데까지 나름대로 새로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가족이 더 많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요양병원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며 혹은 방치 아닌 방치 상태로 지내는 가족은 또 얼마나 될까.

작가는 아버지의 기억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소환한다. 어머니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전쟁을 겪고 성마른 마음의 아버지는 그 어디에도 정을 담지 않았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은 두 사람의 차이를 마모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켰다.” 작가 자신의 기억도 불려낸다. 언젠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라고 물었는데, “잘 모르겠구나. 나는 이미 많은 일을 겪었어”라며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심정을 적나라하게 토로한 날도 있었다. 아버지의 강박은 전쟁에 관한 기억 때문인데, 그런 이유로 아버지는 “내가 뒤쳐졌을 때 사람들이 날 채근하는 게 싫어”라고 말하곤 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고 해야 옳을 듯하다.

기억이 사라지고 몸도 야윈 아버지는 끝내 요양원에 입원했다. 작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작품을 끝내고 싶었고, 그렇게 했다. 아버지는 기억이 점차 희미해졌고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했다. 때론 현자일 때도 있었다. 아들이 자신에 관한 글을 쓴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너희는 너희 할 일을 하렴”이라며 모든 걸 안다는 듯 말할 때도 있었다. 집에서 집으로 가고 싶다던 아버지는, 요양원에서도 집으로 가겠다고 아들에게 보냈다. 그럼에도 아들은 “침착하게 기다린다”며 아버지의 마지막일지 모를 한 순간 한 순간의 삶을 긍정한다. 몇 해 전 출간된 『유배중인 나의 왕』에 여전히 눈길이 가는 이유는 익숙한 한국 사회의 모습이 중첩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작가는 삶의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 더욱이 기억을 잃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이들에게도 오롯한 삶이 있으며 그렇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살아가고 기억하고 사랑한 나날들을 잊었지만 인간으로서의 격만은 잊혀서는 안 된다고 작품 내내 말하고 있다. 『유배중인 나의 왕』은 기억 저편에 유폐된 우리 모두의 왕들에게 바치는 헌사이다.

장동석

출판평론가, 『출판저널』 편집장과 『기획회의』 편집주간으로 일했고, 지금은 계간 철학잡지 『뉴필로소퍼』 편집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살아 있는 도서관』 『금서의 재탄생』 『다른 생각의 탄생』이 있다.

책 나르는 사람들



사서 추천 도서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어른답게 삽시다

이시형 지음 | 특별한 사제 | 2019

‘백세시대’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매달리느라 미래를 준비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수많은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른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정답은 알기 어렵고 부담감은 커지기만 한다. 이런 고민에 빠진 이들에게 이 책은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건넨다. 국내 정신의학계 권위자이자 국내 최초의 웰니스 마을 ‘힐리언스 선마을’을 건립하며 뇌과학의 대중화를 이끄는 이시형 박사의 신작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행동은 느려지고 생각은 자꾸 지워지지만 마음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르게 생각하면 나이가 든다는 건 숫자가 더해지는 만큼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는 일이기도 하다. 이 책이 주는 조언을 지침 삼아 나이만 내세우는 ‘꼰대’가 아닌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어른’이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

“올바르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시간을 그저 고독한 감정놀이로 허투루 쓰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깊은 사유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진짜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나이가 든 다음이다.” 205쪽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818-19-819-2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100세 철학자의 인생 희망 이야기 김형석 104-19-25=2
어른이 되는 시간 김달국 199.1-19-136=2



진짜 그런 책은 없는데요 : 또다시 찾아온 더 엉뚱한 손님들

젠 캠벨 지음 | 더 브러더스 매클라우드 그림 | 현암사 | 2019

이 책의 저자 젠 캠벨은 영국 런던의 작은 책방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다양한 손님들의 일화를 소개한다. 서점에 와서는 책 읽기를 싫어한다고 고백하는 손님부터 햄버거 쿠폰으로 책을 사려는 손님, 책을 서가에 숨겨 놓고 다음 날 와서 숨겨 놓은 책이 없어졌다며 찾아달라는 손님, 다른 서점에서 산 책을 환불해 달라는 손님, 다짜고짜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일상을 이야기하는 손님, 직원의 신발에 구토한 술 취한 손님까지……. 얼핏 평화롭게 보이는 서점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상상 초월, 엉뚱한 일화들을 읽다 보면 ‘서점 직원도 극한 직업이구나!’, ‘나도 이런 손님 만난 적 있어!’라는 공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 책은 없는데요』의 두 번째 시리즈이며 손님과 직원 간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볍게 읽기 좋다.

“손님: 이 쿠폰으로 이 책을 사고 싶는데요.
직원: 이걸 햄버거 무료 쿠폰인데요.
손님: 네, 햄버거 하나에 책 두 권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적절하지 않나요?” 95쪽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847-19-1=2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그런 책은 없는데요… 젠 캠벨 847-18-2=2
오후도 서점 이야기 무라야마 사키 833.6-19-9=2
있으려나 서점 요시타케 신스케 838-18-34=2



우울하면 좀 어때

김승기 지음 | 문학세계사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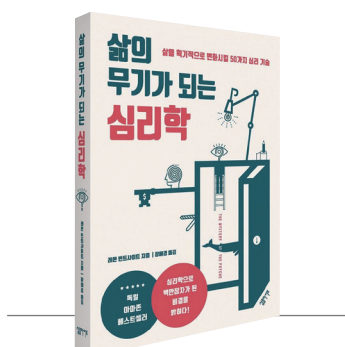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상담해왔던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흔하게 겪는 사례별 감정 문제들과 처방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1부에서는 자존감이 낮거나 높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2부에서는 ‘자라나지 못한 마음속의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겪는 아픔을, 3부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받는 상처를, 4부에서는 부부관계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5부에서는 ‘장애와 통증 사이- 내가 혹은 이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라는 주제로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고단한 회사 생활부터 사회 초년생으로서 겪은 고민, 학생들이 느끼는 학업 스트레스, 엄마이지만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느끼는 고단함 등 누구나 자신만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마음에 안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 덜어내 보는 건 어떨까. ‘까짓것 좀 우울하면 좀 어때?’라고 말이다.

“이 세상에 원래 ‘높은 자존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존재할 뿐이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은 ‘자기를 이 세상의 하나의 개체로 인정하는 것이다.’”^{24쪽}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189.1-19-19=2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힘든 나에게 글배우 818-19-484=2
오늘은 이만 좀 쉬게요 손힘찬 818-19-464=2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박준 814.7-17-319=2



삶의 무기가 되는 심리학

레온 빈트사이트 지음 | 심플라이프 | 2019

걱정이 있어 잠을 못 이루거나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때, 연봉 협상을 할 때 등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들을 늘 마주한다. 이 책은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50가지 심리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책의 저자는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퀴즈쇼 〈누가 백만장자가 될 것인가?〉에 출연하여 상금 100만 유로를 타면서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되었는데, 자신의 우승 비결로 ‘심리학’을 꼽았다. 그러면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제대로 훈련한다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심리학을 공구함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한다. 자신이 필요할 때 심리학이라는 공구함에서 심리 도구를 꺼내어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심리 공구함을 가득 채운 후 상황에 맞는 심리 도구를 꺼내어 활용해보자. 위기의 순간도 자신에게 맞는 유리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나는 세계 최고의 퀴즈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심리학을 배운 만큼 두뇌의 작동 원리를 잘 알았고, 따라서 최단 시간 안에 최대의 지식을 집어넣으려면 어디에 접속해야 하는지도 잘 알았다.”^{116쪽}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180-19-19=2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한번 읽으면 절대로 잊지 않는 심리학 공부 강현식 180.1-19-7=2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긍정 심리학 류쉬안 189-19-60=2
행동 뒤에 숨은 심리학 이영직 181.3-18-25=2



어느 날 문득 경제공부를 해야겠다면 :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상식 66

김경민, 김희권, 박혁진 지음 | 황금부엉이 | 2019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자가용을 탈지, 1+1 행사 중인 상품을 살지 말지, 나아가 전세를 연장할지 대출받아 집을 살지 등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비교하고 선택하기를 반복한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는 ‘물가’, ‘부채’, ‘연말정산’과 같은 용어부터 ‘블랙프라이데이’, ‘5G’, ‘모빌리티 산업’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용어까지 살면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경제 개념 66가지를 소개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느끼는 물가와 내가 느끼는 물가는 왜 다를까?’,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하는 대신 처음부터 세금을 정확하게 댈 수는 없을까?’와 같이 우리가 한 번쯤 가졌을 법한 경제적인 의문에 관한 관련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냄으로써 답을 제시한다. 어느 날 문득 경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이 책으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물가는 말 그대로 물건의 값이다. 소비자들은 자기 범위에 있는 물건의 값에서 물가를 느낀다. 먹거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정부가 따지는 물가는 단순히 물건 값만 뜻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값을 매기는 물건과 서비스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272쪽}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320-19-36=2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삶의 무기가 되는) 쓸모 있는 경제학 이원배 320.1-19-5=2
상식 밖의 경제학 댄 애리얼리 320.04-18-18=2
아이언맨 수트는 얼마에 살 수 있을까? 박병률 320.04-16-19=2



안녕, 인간

해나 프라이 지음 | 와이즈베리 | 2019

미래 사회를 예측할 때 인공지능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 많은 사람들은 기계가 지배하는 미래를 예측하며 두려워하는데, 이 책에서는 부와 권력을 지배하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사회를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보여 준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알고리즘의 오류도 지적하면서 인간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해결책도 제안하기 때문이다. 비행기와 자동차에 이용되는 자동 조종 장치, 의료계에서 쓰이는 암 진단용 신경망, 총기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략적 용의자 명단, 고객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슈퍼마켓 알고리즘 등이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진 알고리즘의 오류로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저자는 기계가 객관적인 만능 해결사로 군림하지 않으려면 인간이 알고리즘의 결점과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생할 수만 있다면 두려움을 넘어 우리가 상상했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알고리즘과 인간이 상대의 강점은 활용하고 결점은 포용하면서 동반자로서 함께 일하는 것이다.”^{300쪽}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331.5412-19-61=2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알파고를 분석하며 배우는 인공지능 오츠기 토모시, 미야케 요이치로 004.73-19-63=2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김재인 126-17-24=2
알고리즘 행성 제바스티안 슈틸러 005.1-17-16=2

영상으로 보는 『사서 추천 도서』는 YouTube의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채널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반려동물도 나처럼 행복할까

데이비드 미치 지음 | 불광출판사 | 2019

반려동물의 수명은 짧게만 느껴진다. 항상 활기 넘치던 아이가 서서히 기력이 떨어지면 그제야 이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당황한다. 명상 지도자인 저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명상을 통해 남은 시간을 좀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한다. 티베트 불교의 명상법은 비종교인도 열린 마음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시도할 수 있다. 다양한 명상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반려동물과 겪은 신기한 경험에 대한 사례도 실었다. 우리는 반려동물의 죽음이 다가오면 그들이 떠나고 나서 겪을 슬픔과 상실감으로 방황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내 감정보다는 반려동물이 좀 더 평화롭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 모든 의식이 있는 존재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말은 통하지 않으나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몇 안 되는 가까운 동반자인 반려동물과 작별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명상할 경우 반려동물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고요함이든 자비심이든 우리가 제공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207쪽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527.386-19-3=2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나 이 든 반려견을 돌보는 중입니다 권혁필 527.4186-18-12=2

용수 스님의 꿈 용수 224.3-18-40=2

반려동물을 잃은 반려인을 위한 안내서 켄 돌란-델베치오, 낸시 섉스턴-로페즈 182.3-17-4=2



땀장이 의사의 국경 없는 도전

김용민 지음 | 오르골 | 2019

저자가 의사로서 살아온 35년 인생을 그린 자전적 에세이이다. 저자는 소록도 공중보건의 근무를 계기로 이타적인 삶을 지향하게 된다. 환자의 치유를 돕거나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는 땀장이 역할을 할 때 보람을 느꼈기 때문이다. 40여 편의 글로 구성된 책의 1장에는 현재의 저자를 있게 한 개인의 역사, 2장에는 의사이자 한 남자로서 후배를 양성하고 자녀를 양육한 과정, 3장에는 진정한 봉사의 의미, 4장에는 다양한 구호활동과 생애의 의미를 찾아가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이티 대지진 구호단으로 활동한 이후 저자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겠다는 소명의식으로 대학을 조기 퇴직하고 국경 없는 의사사회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처럼 퇴직 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더 아름답고 의미 있지 않을까?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는 ‘안심시키는 것’이다. “수술을 안 해도 괜찮다”는 확신의 말로 인해 안도하고 기뻐하는 환자를 볼 때도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 얻는 평화가 더욱 값진 것처럼.” 122쪽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510.4-19-7=2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윤정은 818-18-456=2

한국 의사들이 사는 법 안종주 510.4-2-13=2

의술은 국경을 넘어 나카무라 테츠 510.4-6-3=2



달리는 오늘의 도서관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도서관을 만나다

- 서울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 스페인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

2019년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서울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큐레이션을 선보이며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스페인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향토자료를 보존하는 노력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모든 정보와 공간을 활짝 개방해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해가는 도서관이다.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2019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대통령표창 수상

2014년 4월 3일 개관한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은 답십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작은 주택가 골목 안에 자리하고 있다. 소박하고 지역 친화적인 모습을 지닌 이 도서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큐레이션 ·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 역할 · 비즈니스 특화 정보서비스 등의 성과를 통해 개관 5년 만에 대통령표창 수상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 지역에 꼭 필요한 도서관을 만들자는 한마음으로 젊은 직원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낸 유의미한 성과이다. 반짝이는 수상의 영예를 품고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은 이제, 가장 지역다움으로써 세계적으로 빛날 수 있는 도서관의 내일을 꿈꿔본다.

글 박은아 사진 한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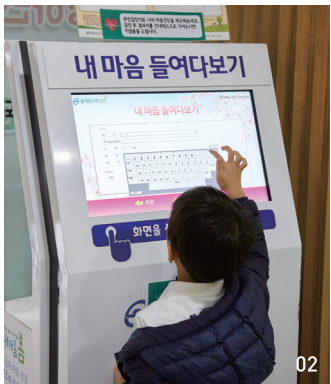
열정과 의지로 뭉친 사서들이 있는 도서관

지난 10월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놀라운 새 기록이 만들어졌다.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이 5년 2개월(심사일 기준)이라는 역대 최단기 수공기간으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1위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것이다. 2017년 개관 3년 만에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만에 또다시 이뤄낸 쾌거다.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은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이토록 짧은 기간 안에 저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시작은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이 개관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대문구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건립 및 운영하게 된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은 개관 때부터 남달랐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과 송민선 관장은 남다른 의지와 결단으로 경력 있는 사서들을 기존 도서관에서 영입하는 대신 공채 시험을 통해 신입 사서들을 대거 발탁했다. 경력은 짧지만 열정과 의지로 똘똘 뭉친 젊은 사서들은 하나부터 차근차근 '우리의 도서관'을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려나갔다. 개관 전부터 스터디 그룹 '다독다독'을 꾸려 함께 국 · 내외 도서관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에 적용시킬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송민선 관장을 비롯한 도서관 사서 10명이 모두 참여하는 이 스터디 그룹은 지금도 매달 2회씩 꾸준히 열린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현정 · 신은선 · 김민정 · 유선정 · 방응배 ·
나혜진 사서, 송민선 관장, 황선영 사서



01
종합자료실 서가에 마련된 다문화도서 코너.
다양한 언어권의 책이 구비되어 있다

02
이용자가 직접 마음 상태를 점검해볼 수 있는 무인 마음건강검진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도서관

한편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이 개관하던 시점은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빌라 신축 등 주변 환경의 변화가 많았던 시기다.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은 이러한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니즈를 정교하게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도입을 추진, 개관 후 4개월 만인 8월부터 전국 구립도서관 최초로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책과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 어떤 연령대가 어떤 시간에 많이 이용하는지 등을 분석해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일례로 자녀교육 분야에서 하브루타 교육에 관한 키워드가 급상승하면 하브루타 관련 강좌를 열고, 성교육 관련 도서를 유의미한 순위로 대출한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부모

대상 성교육 특강을 실시했다. 지역의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음을 고려해 다문화자료 서가를 별도 마련해 다양한 언어권 도서를 구비해놓기도 했다.

“이용자들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관 전부터 고민했다. 감에 의한 운영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이용자 분석이 도서관 성장의 기초 단계를 탄탄하게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한다.”라는 송민선 관장 말처럼, 빅데이터 시스템은 다른 어떤 도서관이 아닌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이용자들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하고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을 갖추는데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용자들의 니즈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니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이 운영하는 강좌 및 문화 프로그램은 인기가 매우 높아 올해 5월에 인터넷 신청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는 강좌 신청일이면 새벽부터 줄이 도서관 앞 대로변까지 이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졌을 정도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높은 인기를 누리는 강좌 상당수가 유료라는 점이다. 도서관이 제공하는 강좌는 무료일 거라는 일반적인 기대 심리를 과감히 깨고 유료 강좌의 비율을 높였다. 이용자들이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더 원할 거라는 판단에서다. 예상은 적중했다. 자연스럽게 많은 도서관이 안고 있는 숙제인 예약 부도율도 줄었고, 이용자와 강사의 만족도는 더 높아졌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프로그램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의 새로운 시도들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도서관 내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성 및 융합성을 장착한 원스톱 서비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에는 이용자 니즈를 바탕으로 개발한 특화 프로그램도 다양한데, 원스톱 취업정보 지원서비스와 마음행복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취업 준비로 도서관을 찾는 20~30대 이용자 비율이 높음을 확인한 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업 관련 도서 중에서 대출빈도가 높은 도서를 다시 추적해 관련 저자를 초청하는 릴레이 취업특강을 여는가 하면, 취업특화 테마서가 운영(총 1,180권 소장), 실시간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키오스크 설치, 서울시 일자리카페와의 협약을 통한 연계 서비스 제공 등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원스톱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특화 프로그램 마음행복서비스는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진다. 동대문구보건소와 협력하여 무인 마음건강검진기를 도입,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인검진기를 활용해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ADHD척도, 우울증, 스트레스 등의 수치를 확

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연계해 마음약국 테마서가를 마련해 관련 책 추천도 한다.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동대문구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유관 기관 안내까지 도우며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세계 속 도서관을 꿈꾸며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은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7개 층으로 이뤄져 있다. 총면적은 3142㎡로, 1층 어린이·유아열람실부터 2·3층 종합자료실, 4층 디지털자료실과 디지털라운지 등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공간이 알차게 설계되어 있다. 옥상 공간인 5층도 이용자들에게 전면 개방해 야외 공간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사서 추천도서 서가부터 마음약국 서가까지 특화된 큐레이션이 돋보이는 공간들이 곳곳에서 이용자를 반긴다.

지하 2층에는 다양한 강좌와 독서모임 등이 열리는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은 개관 초기에는 보존서가로만 이용되던 공간이다.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은 2017년 서울문화재단의 생활문화지원센터 공모사업을 통해 지하 2층의 유휴공간을 커뮤니티실로 재구성했다. 공모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필수요건이 아니었음에도, 지역주민들은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현장실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며 지원사업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애정을 짐작할 수 있는 단적인 에피소드다.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직원들 역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이라는 점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송민선 관장은 대통령표창 수상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도움과 직원들의 열정이 합쳐져 받을 수 있었던 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활발한 주민 참여가 가능한 중심에는 열린 마음으로 이용자와 소통하는 사서들의 노력이 있다.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은 모든 대출데스크를 정규직 사서가 지킨다. 직접 이용자들을 만나 신뢰를 쌓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빅데이터 시스템이 체계적인 분석을 해주어도, 그 바탕에는 이를 활용하는 기획력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는 소통력을 지닌 직원들이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열정으로 지역 맞춤형 도서관을 가꾸어온 5년.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표창까지 수상한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앞으로도 지역주민에게 최적화된 도서관을 만들어가고 싶고 지식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장해 모두를 위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면서,



03
2019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대통령상 수상 기념사진

04
생활문화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영어 강좌

동시에 세계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기를 감히 꿈꾸어 본다.”

송민선 관장과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품고 있는 바람이 결코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도서관 곳곳에 스며있는 차별화된 운영력과 이용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욱 지역에 밀착됨으로써 세계적으로 확장될,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의 미래가 기대된다.

이용시간 토~목요일 09:00~22:00(종합자료실, 디지털라운지)
09:00~18:00(어린이실, 디지털자료실)
휴관일 매주 금요일(정기휴관일), 법정공휴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4길(답십리동 474-5)

스페인 톨레도 지역 도서관의 중심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

스페인 톨레도 시에 위치한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은 스페인 톨레도 지역 도서관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주변 도서관들과 도서관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자료를 수집·보관하는 일을 활발히 펼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활짝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의 모습은 지역 공공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길, 그 자체였다.

글 임국희 계룡도서관 사서

01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
내부 열람실 전경

02

도서관이 보이는 마을 풍경
© 공식 유튜브채널 Biblioteca de Castilla-La Mancha

03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 내부 모습
© biblioclm



톨레도 알카사르에 위치한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약 70km 거리에 있는 톨레도 시에 위치한 지역 도서관이다. 톨레도 시는 톨레도 주의 주도州都로,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덕분에 톨레도 구시가지 자체가 1986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톨레도 시내로 향하는 길은 가파른 언덕으로 이어져 있는데 버스터미널에서 내려 언덕 위까지 이어진 긴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편안하게 마을 시내로 들어설 수 있다. 톨레도 시는 소설 『돈키호테』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마을로, 돈키호테의 마을답게 마을 어귀에는 돈키호테를 테마로 한 식당과 기념품 매장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이국적인 거리 풍경과 사람들을 구경하며 길을 가다 보면 어느새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 앞에 당도하게 된다.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 건물은 18세기 대주교의 도서관으로 설립된 후 1966년부터 시민에게 개방되어 톨레도 지방의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1998년 이전에는 소코도베를 광장 한쪽에 위치해 있었으나 도서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현재 위치한 알카사르 군사박물관 위층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알카사르 Alcázar는 스페인 성을 뜻하는 말로, 건물 아래쪽 층들은 군사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위쪽은 도서관으로 사용 중이다. 우리가 도서관을 방문하였을 때 거리에 경찰이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마침 그날 오후 스페인 왕이 도서관 아래에 위치한 군사박물관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지역사회와의 상생까지 고민하는 도서관

도서관 내부로 들어서면 대출실 한가운데 위치한 테마별 도서 코너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푸근한 미소로 우리 일행을 맞아준 카르멘 모랄레스 마테오 Carmen Morales Mateo 관장의 설명에 따르면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은 ‘관심의 중심’이라는 이름으로 매 시즌 관련 테마나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 관련 도서 및 시청각 자료를 모아놓은 코너를 운영한다고 한다. 우리가 도서관을 찾았을 당시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후 50주년을 기념하는 관련 도서전과 암스트롱의 달 착륙 60주년 기념 관련 도서전이 진행 중이었다.

벽면 한쪽에는 커다란 파란색 박스 안에 빵과 식료품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도서관과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 식료품들은 ‘책은 마음의 양식을 쌓는다’는 의미로 아르헨티나 빈민 구호단체에 기증하는 캠페인을 위해 도서관 이용자들이 직접 기증한 것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은 이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하여 도서관 자원봉사자가 직접 병원에 찾아가 책을 읽어주거나 도서 대출을 도와주는 ‘보건소 및 병원 속 북카트’, 이민자 및 언어 미숙자를 위한 언어 학습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사회 공헌



Castilla-La Manch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다른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연대까지 고민한다는 사실이 매우 인상 깊었다.

대출실에서 나오니 또 다른 이색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도난방지장치였다. 한국 도서관의 경우 보통 자료실 입구에만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는데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은 화장실 안에서 책에 부착된 도난방지감응기를 제거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장실 입구에도 설치한다고 한다. 한국과는 다른 부분들에 신기해하면서 복도를 따라 계속 걷다 보니 도서관에 책을 기증한 사람들의 초상화가 가득 걸린 벽면이 나타났다. 벽면 맞은편 창가에서는 햇빛이 가득 들어와 도서관 로비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고 나이가 지긋한 노인 이용객 한 분이 햇빛을 받으며 등받이 의자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었다. 그 모습이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고 여유롭게 보였다.

지역 자료를 보존하려는 카스티야 라만차의 노력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부르동 로렌-사라의 방'이라고 불리는 고문서 전시실이었다. 19세기부터 소장하고 있던 가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이곳에 전시된 도서 및 필사본 자료가 약 15,000권 정도라고 한다. 방문 당시에는 톨레도에서 재판관을 지냈던 알까뜨리또가

기증한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었는데 스페인 톨레도부터 아프리카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알까뜨리또는 중부 아프리카에 도서관을 설립하면서 그곳에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2년 해당 지역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자료 훼손 방지를 위하여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이 50년 동안 임대하여 보관 및 전시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리 전시장 안에는 9세기 필사본 코란부터 아랍어 자료, 14세기 무함마드 Muhammad(이슬람교 창시자)의 인생이 적힌 필사본, 이슬람 배경 이론서, 언어학습서, 이슬람의 사랑에 관한 시, 유목민의 집 관련 그림, 북아프리카 생활 모습이 그려진 그림, 권리 및 법에 대한 도서, 현재의 유럽과 지중해 지역을 이슬람 관점으로 그린 지도까지 매우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귀중한 자료가 가득 모여 있는 전시실을 둘러본 후에는 열람실로 향했다.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의 열람실은 긴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천장 높이가 매우 높고 열람실의 너비가 굉장히 넓은 것인 인상적이다. 양쪽 벽면 서가는 총 3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서가 사이에 위치한 큰 창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열람실 전체를 환하게 밝혀준다. 벽면서가의 1층과 2층은 참고도서와 잡지, 신문 등 일반 열람이 가능한 자료가 비치되어 있으며 3층 벽면서가에는 도서관 보관용 자료가 비치되어 있었다. 이용자들은 열람실 가운데 마련된 긴



책상에서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는 등 자유로이 각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열람실에서 나와 이동한 다음 공간은 강의실이다. 강의실에는 마침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은 적십자 교육, 일반 이용자들을 위한 교육, 청년 대상 교육 등 다양한 강화를 이곳 강의실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독서클럽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의 독서클럽은 단순한 독서활동 장려를 넘어 시민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교류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무려 30개의 클럽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나아갈 길을 확인한 시간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공간이 옥상 공간이다. 도서관 옥상은 평소에도 이용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아래를 내려다보며 건물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이 있는 알까사르는 주로 각진 모양에 네모퉁이에 탑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곳 역시 건물 네 모퉁이에 각각 탑이 솟아 있고 탑과 탑 사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가운데는 땀 뿜린 구조로 이뤄져 있었다. 4개의 탑에는 각각 종교적인 자료를 보관하는 공간, 간식당, 일반자료실, 전산 관련 자료실이 있다고 한다.

옥상에서 전경을 내려다본 후 다시 이동한 곳은 '카스티야-라만차의

방'이다. 우리나라의 향토자료실처럼 이 지역 관련 도서를 수집하고 지역 연구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다. 해당 자료실의 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현재 자료들을 영구 보존하기 위한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북트럭 한쪽에는 카스티야 라만차 지역을 배경으로 집필된 소설책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한편,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의 강당은 도서관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작은 시 단위 및 구 단위의 주요 도서관들이 박물관, 고문서 운영관 등 50개의 협력기관·단체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 도서관 정책과 공동지침서 및 이동도서관 설치 등에 관해 논의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결정 과정이 이 강당에서 이루어진다.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은 2022년까지 도서관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키기는 것을 목표로 관련 강좌와 행사 등을 기획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역의 향토자료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대 서지 정보 보존, 시민들이 서로를 돕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 연대 프로그램, 도서관 정책 및 정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려는 노력까지. 카스티야 라만차 공공도서관은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공간이다.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좋은 예를 확인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01
총 3개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열람실 서가

02
전시실에 전시된 고문서 자료

03
도서관 옥상.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이 열리기도 한다
© biblocim

01 한·러 수교 30주년 앞두고 러시아국립도서관 한국자료실 개실

국립중앙도서관은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현지 시각 기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러시아국립도서관에 한국자료실 'Window on Korea'를 개실했다.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8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문화포럼 기간 중 개최한 개실 기념행사에는 서해란 국립중앙도서관장, 권동석 주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 엘레나 티호노바 Elena Tikhonova 러시아국립도서관 부관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자료실은 분관에 있는 아시아·아프리카자료실 내 있으며 한국어 학습 교재, 한국의 역사 및 문학 관련 도서, 영화 및 음반 자료 등 2,688책(점)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실 설치는 주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아시아·아프리카자료실 내 최초로 설치된 단독 국가 자료실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러시아국립도서관에 2024년까지 매년 200여 책(점)씩, 5년간 총 1,000여 책(점)의 한국 관련 자료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서해란 관장은 개실 기념행사에서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러 상호교류의 해' 행사 등 문화 분야의 상호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이번 한국자료실 개실이 러시아 내 한국학 연구 및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한국 문화를 확산시키는 거점이 되어 양국 문화교류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2007년부터 시작한 한국자료실 'Window on Korea'는 전 세계 주요 도서관에 한국자료실을 설치하고 양질의 한국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한국학 연구 지원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문의 **국제교류홍보팀** 02-590-6328



러시아국립도서관에 한국자료실 'Window on Korea'를 개실했다

02 2019년을 빛낸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협력세미나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11월 27일(수요일) 오후 2시 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협력세미나를 개최하고, 올해 도서관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비롯한 50개의 상을 수여했다.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자' 부문에서는 5개의 장관표창과 10개의 관장표창이 수여됐다. 개인에게 수여하는 5개의 표창 중, 공주시 평생교육과 임혜영 사서 등 2명이 장관표창을 받았다. 임혜영 사서는 독서문화단체와의 적극적인 문화프로그램 교류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정보서비스 협력 등 다방면에서 공공도서관 협력 업무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단체 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등 10개 기관이 수상했다. 한밭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관중별 도서관, 해외도서관과의 지속적인 상호교류 및 민·관·학 독서문화 관련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독서진흥 협력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논문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 부문에서는 3개의 장관상과 5개의 관장상이 수여됐다. 전문도서관의 콘텐츠 큐레이션, '전시' 모델을 제시한 에너지경제연구원 권혜경 사서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의 문화유산을 결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제시한 인천광역시 영종도서관 권치옥 사서가, 사람과 공간을 잇(IT)는 대학도서관 스마트 공간을 구현한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등이 선정됐다.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부문에서는 2개의 장관상과 5개의 관장상이 수여됐다. 활용사례 부문에서는 '강남구립통합도서관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제안한 강남구립도서관이,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정보 통합 플랫폼'을 제안한 조새움, 최은정 팀이 장관상에 선정됐다.

'오픈엑세스코리아(OAK) 유공자' 부문에서는 OAK 리포지터리 우수 운영 및 OAK 사업에 협력하여 오픈엑세스 확산에 이바지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한양대학교가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책나래 서비스 ▲대체자료 공유 협력 등 총 8개 부문의 시상식이 진행되어 여러 분야에서 2019년을 빛낸 도서관과 사서들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수상자를 비롯해 전국의 사서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시상식과 더불어 ▲'트렌드 코리아 2020'을 주제로 최지혜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의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콘텐츠를 큐레이션 하다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 플랫폼 구축 ▲강남구립통합도서관 빅데이터활용 사례 등 수상자 발표가 펼쳐졌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서비스 유공자(단체)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도서관 가족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총괄과** 02-590-0774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9년 협력세미나

목숨 걸고 단종 시신 수습한 엄흥도 관련 문서 나타나

국립중앙도서관은 고문헌 무료 상담을 통해 영월염씨 증의공계 광순문 종친회 소장 희귀 고문서 및 족보 등 4책을 지난 11월 12일(화)에 기탁받았다.

기탁받은 자료는 경북 군위 지역에 거주하는 영월염씨 후손들인 종손 엄근수를 비롯해서 엄태조 등이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특히 엄근수가 소장하고 있던 완문^{完文}은 1733년(영조 9)에 병조에서 발급한 관문서^{官文書}로, 희귀 고문서이다. 세로 37.4cm 가로 205cm인 이 자료(완문)는 조선전기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嚴興道 1404~1474}의 증의를 기려, 그의 후손들에게 군역과 잡역을 면제해 줄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엄흥도는 당시 서릿발같은 어명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지낸 일로 평생 숨어서 살다가 생애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종종 때 그의 충절이 조정에서 논의되었으며, 1698년에 공조좌랑, 1743년에 공조참의, 1833년에 공조참판, 마침내 1876년에 ‘충의공^{忠毅公}’이란 시호를 받았다.

기탁 자료에는 완문 이외에도 엄흥도 편지¹⁴⁶⁴, 『영월염씨족보』¹⁷⁴⁸도 있다. 엄근수 종손은 “귀한 자료를 집안에 두기 보다는 국가기관에 기탁해서 안전하게 보관되고,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연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국가기관을 믿고 선택 기탁해 준 종손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며, 향후 보존처리 및 신속한 디지털화를 통해 연구자 등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매년 민간에 있는 고문헌 발굴과 함께 기증·기탁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의 **고문헌과** 02-590-0507

서울시 교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디지털미디어 교육 받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원과 11월 19일(화), 교원연수프로그램 공동운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직원의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직원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공동 추진하는 사업의 협력 및 지원 ▲양 기관의 방문 및 시설 사용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우선적으로, ▲내년 3월 신설되는 디지털도서관 ‘1인 미디어 스튜디오’ 등 창작 공간을 활용한 미디어 활용 및 제작 교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미래 꿈희망 창작소(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한 메이커교육 등을 추진하며, 이후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 정보활용 강화 교육 등으로 확장해갈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서혜란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초·중·고 및 유치원, 특수학교 교원으로까지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우리 기관이 교직원의 역량 향상과 학교 교육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 **디지털정보이용과** 02-590-6301



국립중앙도서관, 개인 소장 문화예술자료까지 디지털화 지원

국립중앙도서관은 11월 ‘문화예술자료 디지털화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참여기관을 11월 29일(금)까지 공개 모집했다. 국내외 공공·민간 문화예술기관·단체·협회, 개인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주요 문화예술자료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12월까지 약 100,000책(점)을 디지털화를 하며, 이를 통해 자료의 보존과 수집, 문화예술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상 자료는 문화예술 분야의 악보, 전시도록, 공연 프로그램, 무대도면 등 낱장자료, 국제행사 기록자료, 동영상, 비도서자료 등이다. 선정 자료에 대하여 스캔, 목차구축, 메타데이터구축 등 디지털화 전 과정 지원하고, 해당 데이터는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http://www.nl.go.kr>)을 통해 서비스하며 소장기관에도 제공된다. 디지털화 선정기준은 원자료의 훼손 우려로 보존이 시급하거나 자료 활용성이 높은 자료, 기관의 현황 및 활용계획 등이며, 디지털화 신청서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디지털화 자료 및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문화예술자료 디지털화 지원은 디지털화가 취약한 문화예술 분야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 연구 지원을 위한 디지털아카이브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2020년까지 총 10만 건의 문화예술자료를 디지털화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디지털기획과** 02-590-0561

국립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대상 국가전자 활용 시스템 보급

국립중앙도서관은 12월부터 그동안 구축해 온 저자데이터를 국내 대학도서관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국가전자 활용을 희망하는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보급한다.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저자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이 인력, 비용 등의 문제없이 새로운 저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2월 6일(금)까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학 95개교를 대상으로 ‘국가전자 활용 시스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대학에 시스템을 보급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 95개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관리시스템(TULIP, SOLARS 8)에 전자 활용 기능을 신규로 개발한 바 있다(2019년 11월 기준).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보급은 국가적으로 중복적인 전자데이터 작성 방지 등 전자 구축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가 지식 정보자원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함이다. 내년에는 자료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선정하고 전자 연계 기능을 개발할 계획이며 총 155개교(60% 이상의 대학)에서 시스템 보급의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가서지과** 02-590-6339

책수레봉사단, 구세군지역아동센터와 소록도 한센병박물관으로 달리다

국립중앙도서관 ‘책수레봉사단’은 지난 11월 23일(토)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구세군지역아동복지센터’를 방문하여 2,000여 책의 목록 작업 및 배가 정리를 실시했다.

책수레봉사단은 2009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봉사단으로, 체계적으로 소장 자료를 정리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봉사는 서울시 서대문구 구세군지역아동복지센터의 요청으로 진행되었으며, 센터는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의 아동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전문기관이다.

또한 책수레봉사단은 12월 6일(금)에는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을 방문하여 300권의 책을 기증한다. 한센병박물관은 국립소록도병원 부설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한센병을 대표하는 박물관이며, 지역주민 다수가 방문하는 관내 도서관이 있는 곳이다. 책수레봉사단은 기증받은 일반자료 200권과 아동·청소년을 위해 별도로 구매한 신간도서 100권을 함께 전달한다.

한센병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 내 도서관 공간은 구비되어 있으나, 도서가 많지 않아서 안타까웠는데 국립중앙도서관 책수레봉사단에서 책을 기증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다.”라고 밝혔다. 책수레봉사단을 이끄는 복남선 사서는 “올해도 책수레봉사단의 작은 선행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했다. 사서들의 아름다운 재능기부가 10년 넘게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주고 희망해주는 곳이 있어 오히려 감사하

다. 향후에도 건강한 도서관문화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움직이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책수레봉사단은 이메일 접수(booksure@mail.nl.go.kr)를 통해 봉사 기관을 모집하며 대상은 복지시설, 작은도서관, 아파트 문고 등이다.

문의 **책수레봉사단** 02-590-6367



국립장애인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운영 변경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향후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조직 운영 강화를 통해 디지털 시대 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한-아세안 어린이·청소년서비스 대표 회의 개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아세안 9개국 국립도서관(캄보디아 국립도서관,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라오스 국립도서관,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미얀마 국립도서관, 필리핀 국립도서관,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 태국 국립도서관, 베트남 국립도서관) 대표단을 초청하여 「한-아세안 어린이·청소년서비스 대표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본 회의에서 한-아세안 대표단은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 활동을 공유하고 독서문화 활성화의 중요함을 인식, 이를 확산시켜 나갈 ‘한-아세안 독서문화 공동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범 아세안 차원의 SNS 독서캠페인 ‘All-together Reading Campaign: Read Me a Book’을 제의하고 국내 대표 독서진흥 캠페인 ‘책 읽어주세요’ 노란앞치마를 공동심볼로 제안하였다. 이어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아세안 국립도서관은 구체적인 공동 사업을 위한 ‘한-아세안 독서문화 공동사업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문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아세안 국립도서관간의 첫 다자간 합의문이며 도서관 어린이 부문 활동에서 더 나아가 문화교류를 시작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아세안 국립도서관은 합의문을 통해, ▲‘공동브랜드’제안: 책 읽어주는 활동 시, 공동슬로건(Read Me a Book – ASEAN is Reading), 공동 심볼(노란 앞치마), 공동해시태그 사용 ▲‘노란앞치마 해시태그챌린지’ 제안: 2020년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는 100일 챌린지를 약속했다. 이번 합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11월 25

일-11월 29일)에 앞서 이뤄진 문화교류 부문의 구체적 성과라 평가된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73



국립세종도서관, 수능 수험생 위한 다양한 응원 행사 마련

국립세종도서관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행사를 다채롭게 마련해 선보이고 있다.

수능을 앞둔 11월 13일(수)에는 도서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오전 9시부터 소진 시까지 합격 기원의 엿과 사탕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오후에는 도서관 정문 입구 로비에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한 북트리(Book Tree)가 펼쳐졌다. 두 개의 북트리는 너와 나, 우리의 좋은 결과를 희망하는 의미로 책 4천여 권을 쌓아 만든 트리의 높이는 각 4m와 3m에 달한다.

또한 11월 26일(화) 저녁 7시 도서관 3층 대화의실에서는 학업에 매진하느라 주위를 둘러보

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인문학 ‘데이터 읽기와 세상 읽기’ 강연을 열었다.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서기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 연구원이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시대에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고, 기업들이 데이터를 통해 혁신을 시도한 사례, 향후 청소년들이 다양한 업종의 진로를 생각할 때 지녀야 할 데이터 이해력의 기본 개념에 대해 소개했다.

이밖에도 11월 19일(화)부터 12월 26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1층 종합영상음향실에서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월플라워 ▲엑셉티드 ▲두레소리 ▲레이디 버드 ▲터미널 등 ‘우리의 앞날을 응원해’를 주제로 수험생 힐링 영화를 상영한다. 영화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자 모두에게 도서관 기념품을 선물한다. 수험생 대상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도서관 누리집(sejong.n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 044-900-9137



“더욱 빠른 국외도서관 소식은 월드라이브러리wl.n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공공도서관, 42번가에 새로운 인문학연구센터 개관

10월 21일 뉴욕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 NYPL은 인문학 연구만을 위한 ‘인문학연구센터 Center for Research in the Humanities’를 개관했다. 9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관의 연구 소장품, 임시 전시품, 수집 관련 프로그래밍이 있다. NYPL 건물로 유명한 ‘스티븐 A. 슈워츠먼 빌딩 Stephen A. Schwarzman Building’ 2층에 자리 잡은 이 센터는 연구자, 학자, 학생 등 광범위한 연구에 종사하는 이용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56개 좌석을 보유하고 있다.

본래 저장고와 직원 공용 공간으로 사용되던 이 센터에는 단기 전시, 방문 수업, 연구 수집과 관련된 공공 프로그램, 강의 및 패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소니 W. 막스^{Anthony W. Marx} NYPL 관장은 이번 연구센터 개관에 대해 “슈워츠먼 빌딩은 무엇보다도 학습과 이해, 지식, 학문을 추구하는 연구도서관이다. 이러한 곳을 본연의 목적(수집을 통해 연구하고 작업하는 것)에 맞게 복원하면서 중요한 건축 요소를 보존하는 것은 도서관 전체가 자랑스럽게 여길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는 슈워츠먼 빌딩에 있는 공공 공간을 복원, 개선, 증가시키기 위한 도서관의 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지어졌다.



새로운 룩셈부르크국립도서관이 문을 연다

15년간의 시간이 걸려 마침내 룩셈부르크의 새로운 국립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룩셈부르크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Luxembourg, BnL}은 붉은 건물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트램역 ‘Bibliothéik’ 옆에 있으며, 35,000㎡가 조금 넘는 부지에 1억 1천 1백만 유로가 투입되었다.

통풍이 잘되는 본관의 1층은 희미한 집중 조명 아래 줄지어 늘어선 서가와 작업공간이 있고, 놀라울 정도로 높은 천장을 가지고 있다. 위층은 미디어 도서관, 오디오실, 음악실, 어린이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도서관 입구에 들어서면 도서관 전체 건물이 한 눈에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공간 중 하나는 1층의 붉은 방인데, 하얀색이나 목재로 장식되지 않은 유일한 구역이다. 이 방은 필사본, 지도, 우표를 포함한 도서관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희귀한 소장품이 전시되어있다.

룩셈부르크국립도서관은 룩셈부르크어부터 스칸디나비아어, 동아시아어, 슬라브어, 켈트어, 라틴어, 히브리어, 산스크리트어, 현대 인도어 등 90개 언어로 된 책, DVD, 오디오 자료를 수집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두었다.

건물에는 전기 피아노가 딸린 음악실도 있다. 도서관 곳곳에 있는 ‘전화부스’처럼 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한 음향장치가 실내에 있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과 어린이 책들이 있는 가족실도 있다.

이용자는 건물 밖에 있는 대출반납기를 통해 24시간 책을 반납할 수 있다. 줄을 서지 않고도 책을 꺼낼 수 있는 ‘자가 대출’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훈련실, 회의실, 최대 7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원형 극장과 전시실도 있다. 도서관 개관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중국국가도서관과 화웨이가 스마트도서관을 홍보하기 위해 힘을 합치다

10월 28일 중국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hina}과 중국의 가장 큰 네트워크 및 통신 장비 공급업체인 화웨이^{Huawei}사는 도서관과 함께 공공문화 서비스 분야의 혁신적인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홍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디지털 도서관을 연구하고 공공 디지털 문화 프로젝트의 통합과 혁신을 촉진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전통문화 전승과 진흥을 위해 양측의 자원을 결합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이 협약에 따라 문화·기술 분야의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기고와 의견을 받습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기고, 만나고 싶은 인물, 궁금한 국내외 도서관, 그밖에 기사에 대한 의견을 todayslibrary@mail.nl.go.kr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그림 이지영 2011년 <다음만화속세상> 공모전을 통해 데뷔했다. 작품으로는 웹툰 <아코르>, 단편만화 <좋아하니까 울리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등이 있다.

책거리에 펼쳐진 행복의 유토피아

글 정병모 미술사학자 ·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



〈책거리〉 6폭 병풍. 종이에 채색, 20세기 전반, 각 83.0 41.0cm, 개인소장 © 다할미디어

만일 여러분 서재에 용이 깃들고, 꽃사슴이 사랑을 나누고, 사자가 울부짖고, 호랑이가 포효하고, 기린이 어슬렁거린다고 상상해보자. 그건 동화 속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소장 민화 〈책거리〉에 그런 세계가 펼쳐져 있다.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광경이다.

용, 기린, 꽃사슴, 사자 그리고 호랑이는 길상과 벽사 기능을 하는 동물이다. 용은 만복을 가져다주는 상상 속 동물이고 기린은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사자와 호랑이는 액을 막아주는 벽사의 동물이며, 장수를 상징하는 꽃사슴은 사랑을 나누는 몸짓을 통해 부부화합을 소망한다. 그렇다면 출세를 상징하는 책과 더불어 이들 동물이 노니는 세계는 궁극적으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상세계다. 우주적인 책거리다. 놀랍게도 민화 책거리에서는 이런 우주적인 서재를 흔하게 만날 수 있다. 적어도 민화 속에서는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다. 과연 민화작가들은 책거리와 서수瑞獸의 조합을 통해서 어떠한 세계를 표현하려 했을까? 그 의문을 풀어주는 작품이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다. 그림 상단에 적혀 있는 제문은 이 의문을 해소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한 쌍의 거북이가 뿜어내는 상서로운 기운이 전하고, 서갑과 그 뒤로는 꽃병을 두었다. 향기가 움직여 봄바람이 그 안에서 살아나고, 한 쌍의 백년조가 사람을 향하여 능히 말을 하네. 有一雙龜瑞氣濃 書匣而匣後置花盆香動春風其內養 一雙百年鳥向人能言語”

이런 책거리를 방에 걸어둔다면 상서로운 기운이 일어나고 향기가 바

람에 방 안 가득 퍼지며, 백년조가 우리에게 장수에 대한 달콤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한마디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림이다. 이 그림에는 ‘책의 유토피아’가 펼쳐져 있다. 민화 책거리의 신화적 세계다. 민화 책거리는 현실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현실과 이상세계를 간단하게 넘나들고 있다. 현실적인 소망과 바람을 은유적이고 서정적이고 환상적인 표현으로 읊었다. 행복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욕망은 사실적이고 이성적인 팩트를 훌쩍 넘어선다. 예술적이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썩 먹고 알 먹는 그림이다.

민화 책거리에서는 행복의 상징들이 깃든 동식물들이 대거 등장한다. 궁중이나 부유한 사대부가 향유한 궁화 책거리에서는 책과 더불어 중국에서 수입한 고귀한 물품들이 가득했지만, 민화화풍 책거리에서는 화훼나 화조와 같은 동식물이 늘어났다. 이들 동식물은 왕권강화의 상징이나 사치풍조가 아니고, 더더구나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구도 아니다. 다남자와 출세와 행복을 염원하는 기복의 상징이다. 정치의 그림이자 골동 취향의 그림이 일상의 그림으로 변신한 것이다.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상상력. 그것은 경이로운 발상이지만 민화 속에는 거창한 이론이나 요란한 구호 없이 그저 무심하게 펼쳐져 있다. 서민에겐 이념, 합리, 사실의 세계보다 앞선 것이 행복을 향한 꿈이다. 이런 나라에서 왜 해리포터가 나오지 않았는지, 그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